朝鮮日報

二十六日夕刊

新聞代 壹枚四錢 ○壹個月八拾錢 ○六個月四圓五拾錢 ○壹個年九圓 (郵稅並)
廣告料 五號活字 每行 ○ 四號活字 每行

發行兼編輯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日本銀行券 廿六日發表 — 無條件 一、 ○ 翌日拂 一、 ○ ○ 英米電信 ○ 아나운서 ○ 大阪三品 (廿六日) 月限 前付 前止 後付 後止 ○ 橫濱生絲 (廿六日) ○ 鮮山 ○ 京城物價 五月廿六日 ○ 今日

時評

專制主義勝利?

× 禁止, 解散, 檢束! 治維法案의 實施를 前後하야 當局者들의 가자 暴甚하여 가는 盲目滅法的 橫暴의 態度는 天下의 民衆모다 均齊하게 體驗하고 잇는 바어니와 이 萬里同風의 專制의 魔術은 멀리 間島의 一境外지도 그 黑手를 벗이어 同地靑年總同盟會의 開催를 禁止함에 미첫다 日本人의 所謂 惡法 治維法의 運用 專制主義의 勝利! 커들로 하야금 可能한 期間가지, 이 專制主義의 勝利에 陶醉케 하라!

× 이것이 또한 歷史進行의 必要한 過程 엇더한 新時期의 到來를 豫告하는 歷史的 前兆이라 할진대 吾人은 오히려 天下의 血氣兒들로 더부러 淋漓한 長太息과 함의 구을러 雄大한 闘爭의 決心을 새로히 할바이다 一九○七年으로부터 自듯한 官僚 貴族 軍閥들의 準備한 『러시아』의 宮庭派를 中心으로 한 暴盃 그의 『쓰알리즘』의 勝利는 곳 어떠한 期間後에 어떠한 歷史的 大事變을 誘發케 하는 必須한 一序幕이 되엇든 것을 생각할 것이다 但 朝鮮의 모든 先覺者들이 와장이 러한 氣魄, 誠心, 力量 잇는 見識이 잇는가? 여기에 重大한 關係가 潛在한 것이다

鼠輩焉敢如此

× 向者 普天敎徒 黃白을 散布하야 世間雜輩를 拘結하야 所謂 時局大同團의 醜措가 잇슨 後 물끌듯하는 民衆의 憤怒 뭇 糾彈聲中에 자못 抱頭鼠竄的 蒼黃한 局面을 當한 後 한참 杳然屛跡 敢히 天日을 正視치 못하는 慨가 잇든바 이제 그의 敎主인 車京錫 江湖上의 所謂 車天子 忽然히 蹤跡 秘跡 京城에 潛入하야 晤夜深宮 鑒務當局의 首腦者와 長時密議하고 다시 忙忙然 去處를 감추니 術者의 要作은 무엇이며 그 將來의 行色은 무엇일가? 衆어쉬 死灰復燃의 虛妄한 企劃을 敢行하는다? 鼠輩가 焉敢如此!

× 亡치 際討의 소리 이미 全天下에 가득하니 吾人은 별로 死骸를 辦答하는 殘忍을 일삼고커 하지 안는 바이라 이제 淫祠다시 徐徐 蠢動하야 世人의 耳目을 欺瞞케 하는 바 잇스니 吾人 애오라지 그 妄念을 未發에 戒飭코커 하는 바이다 彼等 愚氏의 資產을 吸取하야 쉬 不當한 蒙奢를 恣하고 이제 天下의 靑貴 그의 一類에게 集中됨을 보되 猛然省悟함을 엇지 하지 안코 몰이어 妄想迷藥으로 그의 最後의 自滅을 催促코커 하니 彼等 어쉬 그 殘餘한 黃金을 헤쳐 어 蕩敗한 細民들을 周給하야 쉬 陳荒을 開拓하고 生業을 安頓케 하야 그 浩大한 罪貫을 自贖코커 하지 안코 몰이어 醜世醜醜의 妄動을 하러 하는다? 噫! 鼠輩焉敢如此

張吳兩氏握手
提携하야 天下二分

(奉天電) 昨秋 奉直戰에 馮玉祥이 段祺瑞氏에게서 百五十萬元에 買收되야 變節하고 말엇슴으로 吳佩孚氏는 恨을 품고 岳州로 退歸하게 되엿던바 吳氏는 表面으로는 아조 平靜한듯하나 年來의 宿敵인 張作霖氏보다도 馮玉祥을 더욱 원망하야 機會가 잇스면 馮氏를 驅逐하라는 中인대 前日 吳佩孚氏의 誕生祝賀會에 張氏가 使者를 派한 以來로 吳氏와 親密의 度가 濃厚하게 되야 最近에는 兩者의 使者가 互相往復하야 兩雄은 今後에 握手하야 灰色인 中國의 惑星 馮玉祥을 討伐하고 四百餘州를 二分하라고 腹案을 세운듯하며 張吳의 聯絡은 刮目할 價値가 잇다

張氏入京의 目的
某外務消息通談

(東京電) 最近 張作霖氏는 北京政府에 對하야 入京을 通電하엿는대 右에 關하야 日本外務省의 消息通은 左와 如히 觀測하더라 張作霖氏는 前부터 北京行의 意嚮을 有하엿섯스나 某參謀長은 內外의 疑惑을 加케 할 뿐이라 하야 入京을 斷念케 하엿더니 張氏는 차라리 此際에 斷然 入京하야 各種問題에 對하야 段執政과 直接交涉함이 得策임을 知하고 今回 그러케 決心한 것이며 段執政과 商議할 問題는 左와 如한 事項이더라

一、京奉、津奉 兩鐵道에 對한 奉天派의 實權을 確實히 할 事
二、蒙古、齊齊哈爾 等에 奉天所屬인 行政官所를 設置하야 同地方을 奉天派의 勢力範圍로 할 事
三、北京政府의 收入中으로부터 其一部를 奉天側에 融通할 事
四、東中鐵道問題의 解決方을 考慮할 事
五、露中細目交涉에 關하야 協議할 事

參謀總長에 張學良
段執政이 推薦코자 한다고

(奉天發) 張學良氏의 北京入은 何等 重大問題는 업슨 것 가티 傳하는 中이나 某確實한 方面에서 傳하는 바에 依하면 前者 段執政으로부터 張氏에게 使者를 派遣하야 學良氏를 參謀總長으로 推薦하겟다고 張氏의 意嚮을 問한 일이 잇섯슴으로 張氏는 自己의 代理로 張學良을 派遣한 것이오 氏의 就任은 未定이라더라

慘殺事件大會中止
注目할 中國側의 態度

(奉天電) 日本義勇兵 慘殺事件의 滿洲大會는 二十五日夜에 開催할 터이엇든바 畢竟 當局의 命令으로 中止되엿스나 此事件에 對하야 中國側에서는 日本人은 任意로 事件을 만드러 中國에 트집을 잡으라고 하던 中 今番 地震이 襲來하야 日本은 永久에 滅亡하게 되리라고 말하는 中이더라

洮齊鐵道敷設과
于沖漢氏의 日本側歷訪

(東京電) 滯京中인 前東三省參議 于沖漢氏는 二十五日에 滿鐵及 東拓 其他 對中關係側을 歷訪하엿는데 氏의 來朝가 張作霖에 代表한 關係로 其使命에 對하야 여러가지 想像되는 터이나 氏의 行動으로 보면 明白히 洮齊鐵道 敷設에 對하야 中國과 露國間에 外交問題가 生하엿슴으로 그 對策及 日本側의 意嚮을 聞함이 目的인 듯 洮齊鐵道 敷設은 그 敷設工事를 滿鐵에 引受하야 完成된 뒤에는 滿鐵의 勢家 洮南線을 結付하고 北滿貨客의 南下輸送에 對하야 中東鐵道의 使命을 一部 奪取함과 如한 關係가 露國側에 憂慮되기 시작하엿스며 其結果로 露國側은 中國政府에 對하야 敷設 抗議를 提出하게 되엿는대 此로 因하야 中國政府는 그 善後策에 對하야 直接關係側인 張作霖에게 傳한 結果 張作霖도 同鐵道가 日本政府及 滿鐵에 重大關係를 有함으로 今番에 于沖漢氏를 特히 派遣하게 된 事情이더라

日船의 密漁와
中國의 抗議

(北京二十五日發) 近東中國 沿海에서 日本船의 密漁가 頻頻하다 하야 漁商部는 芳澤公使에게 取締함을 要求하엿스며 一方 山東省長도 同樣으로 靑島總領事에게 抗議하엿더라

日露條約
國際聯盟의 通告

(제네바二十五日發) 日本은 日露新條約을 國際聯盟에 通告하엿다 이것은 聯盟本部에서 同條約을 登錄하고 此를 發表하기 爲함이더라

『트』氏의 新地位
化學專門部長

(莫斯科二十五日發) 確實한 方面의 報道에 依하면 前陸海軍委員 『토로츠키』氏는 最高經濟會議의 化學專門部長으로 薦選되는 中이라 하며 그리고 右任命은 不遠間 正式으로 發表되리라 期待하는 中이다 化學專門部란 것은 產業上의 技術勞働及 生產力의 標準을 定하는 公式의 研究를 監督하는 것이다 至今가지 『토로츠키』氏는 最重要한 位置를 得할 터이라는 所聞이 잇는바 如斯한 官職을 與하게 된 것은 驚異의 情을 不禁하겟다 이것은 彼가 自進하야 高位를 得할 可能性이 업는 것은 아니엇스나 상각컨대 共產的 節制로 因하야 彼는 卽時에 高位를 得하야 復活함을 不得한 것인듯 하드라

日本人의 市民權
米大審院에서 拒否

(華盛頓二十五日發) 米國大審院은 마사추셋스州聯邦裁判所의 判決을 支持하야 米國에 歸化한 日本人 未滿豐太에게 市民權附與를 拒絶하엿다 未滿은 米國軍隊에 服務한 後 歸化한 者인대 右判決理由는 千九百六年의 白人及黑人에 限하야 市民權을 有함을 得한다는 法律은 今日에 至하야 變更되지 아니하엿다 함이더라

米國市民의 妻라도
日中人은 入國을 不許

(華盛頓二十五日發) 米國大審院은 그 判決에 米國市民의 妻인 日本人及中國人은 移民法에 基因하야 이를 移民으로 看做하야 米國에 入國케 할 수 업도록 하엿더라

入國可能者明示

(華盛頓二十五日發) 米國大審院 判決은 市民權을 가지지 못한 中國人의 妻에 對하야 一千九百十四年七月以前 法律上에 正當히 合衆國內에 住居한 者는 千九百二十四年의 條例에 依하야 米國에 歸함을 得한다는 것도 明白히 하엿더라

露國極東航路研究
六月中中國訪問飛行

(莫斯科二十四日發) 露國義勇航空協會 主催 航空軍後援會 援助下에 六月十日에 莫斯科로부터 蒙古로 向하야 長距離飛行이 決行할 것이 決定되엿는데 이 飛行目的은 極東에 對하야 航空路研究와 밋 露西亞聯邦과 其友國인 蒙古及中國과의 聯絡을 緊密히 함에 在하며 이 飛行에는 六臺飛行機가 參加할 터이라 한다 其中 二臺는 莫斯科의 『오드바프』記念工場에서 建造한 야同露國製發動機 A 五型을 裝置한 二型複葉郵遞飛行이더라

日本震災와
英新聞의 同情

(倫敦二十五日發) 當地諸新聞紙는 但馬地方震災의 報에 接하고 한갈가티 日本國民이 事에 當하야 자못 沈着하야 不撓不屈의 精神을 發揮하는 特色을 非常히 賞讚하는 中이다 『今回의 震災는 大正十二年九月 關東大震災와 如히 被害는 甚大치 안흔 것은 不幸中 幸이나 若 諸外國의 援助가 必要하게 될 것 가트면 英國은 率先하야 日本에 援助를 與하겟다』하며 또 諸新聞中 主要한 新聞의 社說은 左에 摘記하면

『웨스트민스터, 가제트』紙 日本은 地震國으로서 屢屢히 大震災에 遭遇하야 壓倒的 困難을 격게 됨에 不拘하고 奮闘努力하야 世界大國의 班에 列한 强固한 決心과 勇氣는 實로 不思可議로 생각할만하다 日本國民은 濃厚한 元氣와 勤儉의 美風을 有하엿스니 이것은 實로 全世界에 對한 實物敎訓이라 云云하더라

利權細目會議
日本代表內定

(東京電) 不遠間 莫斯科에서 開할 利權細目會議에 代表로 派遣될 터인 國林生三郎氏가 辭退한

結果 前波蘭公使이오 東京에 在한 日露會議의 局에 當한 上川俊彥氏로 決定될 터이오 北辰會의 渡邊、三菱의 奧村南氏도 될터이더라

中里中將就任承諾
北樺太石油會社長

(東京電) 北樺太石油會社長 設으로 豫備하던 中里海軍中將은 昨二十五日 財部海相과 會見、就任을 承諾하엿다더라

恩給制改正乎

(東京電) 最近調査에 依하면 退職官吏에게 支給하는 恩給은 總額一億一千萬圓의 巨額에 達하고 더욱히 이 恩給額은 年年增加함으로 恩給制度의 廢止는 不可能하다 하나 政府도 玆에 鑑하야 最近 各省의 政務、事務兩次官을 網羅하는 行政調查會에서 이것을 改正하라고 調查中인바 五十歲를 越치 못한 官吏의 退職에 對하야는 恩給을 支給치 안을 方針이라더라

學士院會員增薦

(東京電) 帝國學士院의 貴族院議員選擧의 準備行動인 四十名의 會員增薦計劃에 對하야 今二十六日午後一時부터 그 推薦會議를 上野美術學校構內 同院에서 行하기로 되엿는데 從來 東大本位의 感이 잇는 것을 今番에는 東北、北海道、京都、九州의 官立大學으로부터 各私立大學의 有名한 學者를 網羅할 方針이라더라

全國警察部長會議

(東京電) 道府、縣警察部長會議는 今二十六日 午前九時부터 內務省에 開會하고 林北海道以下 各府縣警察部長이 出席하고 朝鮮、臺灣、道、州警務部長은 傍聽하게 되야 劈頭에 若槻內相으로부터 訓示를 終了한 後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中 取締規程 實施、治安維持法 其他 數項에 關한 指示事項에 對하야 主管課長의 說明이 잇섯더라

大美術展覽會

(東京電) 福岡縣 若松市 佐藤慶太郎의 寄附 百萬圓으로 建設中이던 東京府美術館은 來年三月十五日外지 竣工할 豫定인데 聖德太子奉讚會는 東京府와 協力하야 開館式을 兼하야 大美術展覽會를 開하게 되엿는데 二十五日 東京府參事會는 右에 對하야 決定한 바이 잇섯더라

井上中將首相訪問

前薩哈嗹派遣軍司令官 井上中將은 二十六日午前十時에 永田町首相官邸로 加藤首相을 訪問하고 薩哈嗹地方 各般狀況에 對하야 詳細히 報告하고 十時半에 辭去하엿더라

憲兵分駐所
三浦副官談

憲兵分駐所를 仁川 其他數個所에 設置하는 事에 對하야 豫히 研究中이던바 今番 隊長會議에서 協議한 後 七個所에 設置하기로 決定하엿스며 設置場所는 仁川과 平壤의 寺洞、鴨綠江岸인 碧潼과 厚昌、圖們江岸인 上三峰、平安北道의 熙川이며 分駐所의 人員은 極少數로 仁川、寺洞은 五名이며 分駐所라는 것은 分遣所와는 異하야 警察署의 出張所나 駐在所에 該當한 것이다 分駐所를 設置하는 目的은 全혀 軍事警察上의 目的이니 例컨대 仁川에는 軍艦이 到着하거나 或은 演習이 잇거나 하는 時에는 從來는 其時마다 出張식히든 것을 旅費의 節約上 駐在식힘에 不過하며 又 平壤의 寺洞은 飛行聯隊、兵器製造所及 海軍의 鑛業部가 有한 關係이며 碧潼에는 守備隊가 有하기 때문이요 其他 現在 軍隊가 無한 곳에도 軍人의 通過라던지 軍部의 對岸에 對한 關係 等으로 因하야 軍事警察上 必要不得已한 場所에만 設置하기로 하엿다 設置時期는 建物의 關係로 아직 決定치 못하엿는데 建物만 決定되면 何時던지 附近의 分隊로부터 分駐식힐 터이다

赤露의 五月祭 (一)

五月二日 在莫斯科 金俊淵

五月一日은 世界의 勞働階級이 自己네들의 힘을 表示하는 날이다 따러서 自己네들의 힘이 弱한 것도 表示될 수 잇고 强한 것도 表示될 수 잇다 그러나 우리가 이 五月一日의 運動을 總히 示威運動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이 運動의 歷史的 價値를 認識하며 따러서 그 成長 發達의 必然性을 看取한 外닭이다

外國勞働者들이 露國에 드러와서 땅(地)바닥에다 입을 마추는 일이 만히 잇섯다 한다 露國은 참으로 勞働者들이 象想하던 理想을 實現한 나라이다 함으로 外國勞働者들은 天國에 드러온 듯이 깃버한다 人類는 한번 일허버렷던 樂園을 다시 차젓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露西亞는 勞働者의 天地다 勞働者라야 上等사람이고 또 上等사람이 될 수 잇고 民衆의 指導者인 地位에 설 수도 잇다 卽 自我를 社會的으로 向上發展식힐 수 잇다 衣服 잘입고 단이는 것이 자못 嘲笑거리고 얼골이 하야케 貴族的으로 생긴 것이 아조 苦痛거리다 아모리 微小한 一個勞働者라도 露西亞大聯合大統領의 地位에 잇는 『칼리닌』에게 『동무』라고 불으며 이야기할 수 잇고 自己가 相當히 努力만 하면 大統領이 밧는 月給 一百九十二留(二百四十圓)를 바들 수도 잇다 勞働者들은 自己네의 指導者들을 참동무로 알고 참 압잡이로 알고 일을 맛겨주엇다 決斷코 한눈에서 떠어첫나 고하여서 政權 가지고 잇는 것을 承認하는 것은 아니다 勞働은 露西亞에서 다시 그의 神聖性을 恢復하엿다 달은 나라에서는 勞働은 神聖이니 무엇이니 하지만 그것은 다 搾取階級의 愚民策이다 勞働이 萬若 神聖한 줄을 알면 웨 1그들에게 神聖하다는 자리를 주지 안는가? 露西亞에서는 일하는 사람이라야만 至高한 權利를 가잇다 政府의 首腦者들은 참으로 일하는 大衆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못한다 勞働者에게는 參政權을 아니주려고 애쓰는 나라들과는 아조 판이이다

露西亞의 五月一日은 참으로 示威運動하는 날이엿다 露西亞의 勞働者들이 新統治者 新主權者된 勞働者들이 그 威力을 世界의 眼前에 表示하야 世界의 有產者를 참으로 戰慄케 한 날이다 온 世界의 勞働者들은 이로 因하야 百倍의 勇氣를 엇게되엿다 露西亞는 卽今은 世界에서 엇지할 수 업는 큰 世界的 勢力으로서 世界의 舞臺에 나왓다 日本이 외로커로 살살 避하던 無產階級의 國家인 露西亞와 가지도 握手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되엿다 昨年 二月一日에 英國이 露西亞政府를 承認하고 五月에 中國이 露國과 正式으로 條約을 締結하고 十月二十八日에 佛蘭西가 承認하고 今年 一月二十一日에 日本이 또 露西亞와 正式條約을 締結하야 二月二十六日에 北京서 兩國이 批准을 通告하엿다 이와 가티 露西亞는 이 바람치고 눈오고 曉濃한 北方에서 漸次 太平洋을 向하고 北京의 活舞臺로 나가게 되엿다 따라서 經濟界도 漸次恢復이 되여 간다 學校도 充實하게 되고 勞働者及農民의 生活程度도 向上하게 되엿다

市內路線改正

京城市內 改修豫定計劃路線表中 左와 如히 改正한 旨를 總督府告示 第百三十四號로써 發表하엿더라

一、自惠化門至中央試驗所附近路線『十間』을『十二間』으로 改함
一、自景福宮前廣場至內資洞路線『十間』을『十二間』으로 改함
一、向貞洞、經宮井洞、至淸雲洞路線 幅員을 十二間으로 改함

植桑補助金
大正十四年度의

大正十四年度의 各道植桑에 關한 補助金은 六十七萬五千五百四十六圓으로 其中 國庫로부터 受한 內示額은 二十八萬圓이오 國庫以外의 植桑(植栽桑苗)에 對한 直接補助는 地方費의 十萬六千二百三十七圓 面費 一萬八千八百八圓 組合費(農會) 二萬七千十圓 合計 十五萬二千五十五圓이라 하며 植桑에 關한 施設經費는 地方費 十四萬五千三百七十三圓 面費 一萬八千八百八圓 組合費(農會) 七萬四千三百十圓으로 合計 二十三萬八千四百九十一圓이라더라

鐵道局의 支出
四百五十萬圓

國有鐵道 一萬三千의 從業員은 移管과 同時에 滿鐵時代의 身元保證積立金、社員貯金、共濟拂戾金 等은 總히 各個人에게 交付하기로 되엿고 滿鐵은 四月三十日로써 全部를 淸算合計하야 現金을 新鐵道局 貯金部에 引渡하는 同時에 各個人에게 元利合計決定額을 通告하엿다 貯金部에서는 五月十五日外지 處分方을 各個人으로 하야금 申出케 하야 拂出을 希望하는 者에게는 何等拘束이 업시 支拂하야 昨今에 至하야 一段落을 告하리라고 觀測되엿는데 滿鐵이 引繼한 時는 保證金 四四九、九一三圓 貯金 一、六九七、四五一圓 共濟拂戾金 一、三六二、九○四圓으로서 合計 七百五十六萬二百七十一圓이엇나 그런데 一般 各個人의 自由意志에 依하야 拂出하게 되자 各金融業者는 預金의 勸誘에 努力하야 種種有利한 條件을 提出하기 때문에 四百五十萬圓餘는 拂出되고 目下 貯金部에 잇는 殘高는 三百十四萬八千餘圓이 되엿다 그런데 四百五十萬圓의 金額은 엇더케 될는지 各銀行은 必死的으로 勸誘하기 때문에 京城府와 如한 곳은 殆히 二十五萬圓餘가 一銀行에 流入되고 其他 高利가 되기 때문에 龍山金融組合 等이 非常히 吸收하엿고 十八銀行 漢城銀行 等도 相當히 吸收하엿고 龍山의 郵便局 等도 最近의 貯金高의 膨脹은 全鮮一이라 稱하고 其他 不動產에 換算한 者와 民間에 貸付한 것 等 相當額에 達한 模樣이다 이와 가티 大多數는 利殖의 途를 講하는 者도 잇스나 靑年이나 下級傭人 等은 一見不相應한 金額을 가지고 得意然히 酒食에 消費하는 者도 不少에 京城府內의 遊廓이나 龍山方面의 料理屋 飮食店 酒店 等과 其他府內의 가페ㅣ 等 鐵道員이라 하면 金錢使用에 活手잇다고 好評判이라더라

師範卒業者
服務期間決定

二十七日附 總督府令 第六五號로써 官立師範學校에서 學資의 一部支給을 受하야 卒業한 者及 修了한 者의 服務期間에 關한 件을 左와 如히 定하엿더라

第一條 官立師範學校에서 學資의 一部支給을 受하야 卒業한 者는 卒業證書受得日로부터 引續하야 左의 各號의 一에 規定한 期間 朝鮮內에서 小學校又는 普通學校의 敎員의 職에 從事할 義務를 有함 但 次條의 義務와 共히 朝鮮總督이 指定하는 學事에 關한 他의 職務에 從事할 事를 得함
一、普通科及演習科를 經한 男子卒業者는 五年
二、演習科만을 經한 卒業者는 二年

第二條 前條에 規定한 卒業者는 卒業證書受得日로부터 引續하야 左의 各號의 一에 規定한 期間 總督의 指定하는 職務에 從事할 義務를 有함
一、普通科及演習科를 經한 男子卒業者는 二年
二、演習科만을 經한 卒業者는 一年

第三條 官立師範學校에서 學資의 一部支給을 受하야 師範學校規程 第百一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講習을 修了한 者는 修了證書受得日로부터 引續하야 其修業期間에 一年을 加한 期間 朝鮮內에서 學事에 關한 職務에 從事할 義務를 有함

第四條 前條에 規定한 修了者는 其修業期間과 同一한 期間 朝鮮總督의 指定하는 職務에 從事할 義務를 有함

附則 本令은 發布日로부터 此를 施行함

京畿公商新築

京畿公立商業學校 校舍가 京大校舍로 充當되는 結果 同校는 府內 淸雲洞 第二高普北側에 新築하게 되여 工費 二十萬圓(其中 八萬九千圓은 地方費支辨)으로 工事入札은 七月中旬의 豫定이며 八月初旬에는 起工하리라더라

夜間金庫開設

二十六日부터 五日間

京城府에서는 二十六日부터 左記 府內 各所에서 夜間金庫를 開設하기로 되엿더라
京城府廳前、本町五丁目、鍾路二丁目、鍾路四丁目、西大門、龍山出張所
右 夜間開閉의 日時는 自二十六日 至三十日外지 五日間 午後七時부터 十時外지이며 尙히 夜間金庫에서는 總히 府稅公課를 收納할 터이나 稅金에 不滿이 잇는 이는 稅務相談에도 應할 터인즉 質疑함이 可하다더라

世界汽船數
三萬三千餘隻
六千五百萬噸

昨年十二月一日 米國商務省 船舶局統計에 依하면 昨年六月末現在의 世界各國 船舶中 百噸以上되는 者는 汽船 二萬九千二十四隻、此噸數 六千五百五十一萬四千四十噸이오 帆船 三千九百三十二隻、此噸數 二百五十萬九千四百二十七噸이 되야 그 合計는 三萬二千九百五十六隻 六千八百二萬三千五百噸에 達하고 更히 此를 國籍別로 示하면 英國 汽船 一萬七十八隻、噸數合計 二千百八十七萬八千五百噸으로 世界의 第一位를 占하고 其次는 米國의 汽船 三千九百九十二隻、帆船 千四十隻、噸數 千五百八十九萬二千八噸으로 第二位이며 第三位는 日本이니 然이나 英米兩國에 比較하면 遠히 劣하니 左記와 如히 順位가 與하니 卽 汽船이 二千五十五隻으로 此噸數가 三百八十四萬二千七百七噸이며 帆船에는 百噸以上을 計上한 것은 全無이다 次에는 佛國인데 汽船 千五百四十隻 帆船 三百十七隻으로 噸數合計가 三百四十九萬八千二百三十三噸이며 第五位는 獨逸인데 汽船 千九百十五萬三千六百七十一噸이요 第六位는 伊太利인데 汽船 九百七十一隻 帆船 三百二十八隻으로 噸數가 二百八十三萬二千二十二噸 第七位는 和蘭으로 汽船 千二十七隻 帆船 五十五隻 噸數 二百五十五萬六千四百十七噸 第八位는 瑞威로 汽船 千六百六十四隻 帆船 八十九隻 噸數 二百五十萬五千三百九十三噸 其次는 瑞典으로 汽船 千百九十七隻 帆船 二百八隻 噸數 百二十五萬四千五百五十噸 西班牙는 汽船 八百隻 帆船 百五十隻 噸數 百二十三萬九千五百二十一噸 丁抹은 汽船 六百二十二隻 帆船 百四十二隻 噸數 百三十五萬九百四十三噸이요 次에 十萬噸以上의 者를 擧하면 希臘 七十六萬一千二百十噸 白耳義 五十六萬五百九十七噸 伯剌西爾 四十六萬四千七百二十四噸 諾威 三十三萬八千七百九十二噸 葡萄牙 三十三萬三百八噸 中國 二十四萬八千百八噸 亞爾然丁 十九萬九千百八十五噸 智利 十八萬一千九十二噸 유고-슬라비아 十四萬一千五百九噸 芬蘭 十萬七千九百五十二噸 等이라더라

鎭南浦
久原製鍊復興
鑛業界復活?

오래동안 休業中이든 鎭南浦 久原製鍊所가 世界經濟의 挽回와 共히 復興의 曙光이 보인다 함은 既報한 바와 갓거니와 兩所에서는 月餘前부터 復業工事에 着手하야 日夜 其準備에 紛忙中이든바 既히 其工事의 大槪가 完成되엿슴으로 來六月上旬부터는 作業을 開始할 터이라는데 此에 伴하야 林萱正氏 經營의 韓西鮮鑛務所도 業務를 復興하야 活動을 開始할 터이라는데 久原製鍊所의 復興은 一般鑛業界의 復興에도 多大한 影響을 波及케 될 터이며 이와 同時에 鎭南浦 勞働界에도 活氣를 보게될 터이라더라(鎭南浦)

平壤製陶工場
不遠實現?

商業會議所에서 調查中

平壤을 中心으로 附近一帶의 土質은 陶器製造에 最適할 뿐 아니라 燃料는 無煙炭을 使用하게 되고 工賃이 매우 低廉할 터임으로 大規模의 製陶工場을 設置키 爲하야 平壤商業會議所에서는 이에 對하야 目下 調查中이라더라(平壤)

平壤無煙炭을
朝鐵에 使用計劃
鐵道省官吏來壤

平壤無煙炭은 그 燃料의 價値에 對하야 一般이 認識하게 되는 바 日本鐵道省에서는 本年度부터 試驗的으로 朝鮮鐵道에 對하야 五千噸을 使用할 터인바 二十五日 鐵道省의 伊藤囑託은 來壤하야 明治鑛業의 大成炭坑、寺洞鑛業部及 龍興의 炭山을 觀察할 터이라더라(平壤)

製叺獎勵로
各郡에 無利貸附
平南道의 新方針

平南道廳에서는 本年度 叺(가마니) 製作獎勵의 目的으로 大同郡에 一千六百圓、龍岡郡에 一千圓、平原郡에 四百圓、安州郡에 五百圓、价川郡에 三百圓、合計 三千八百圓을 無利息으로 貸附한다더라(平壤)

价川郡移郡防止
陳情委員歸還
별로 效果는 업는 모양

价川郡廳移轉防止同盟會 代表 金淳玉、劉廷燦 兩氏가 總督府에 陳情코자 上京하얏다가 去二十三日에 金淳玉氏는 먼저 도라왓는데 內務局長은 말하기를 內定이 되지 아니하얏스면 할 수 잇는 데外지 同情하겟지만는 이미 內定되얏스면 無可奈何라고 하얏고 政務總監은 面會치 못하얏다더라(价川)

金氏渡米送別會

全南順天郡邑內 有志 五十餘名은 去二十三日 正午頃에 當地 東大門外 喚仙亭에서 今番에 渡米하는 本社記者 金良洙氏를 爲하야 送別會를 開催하고 郡守 鄭寅爀、李相協、玉璿珍、吉昇翊 氏의 意味잇는 祝辭와 金良洙氏의 答辭가 잇슨 後 午後 發이 잇섯고 紀念撮影까지 잇섯는데 當地에서는 初有한 大規模의 送別宴이엿다더라(順天)

八面鋒

○ 日本의 地震을 듯고、英米의 新聞은、그 堅實한 勇氣를 稱讚하엿다、몹쓸로운 稱讚、

○ 東京鍋이、京城에 들어왓다고 한다、京城에 電燈이 다 써젓는가、

○ 世界各國의 汽船數가、三萬三千隻이 나된다、그 中에 우리 所有가 몃隻이나 되느냐、

○ 所有欲은、舊時代의 遺物이라 하면、그 中에서、우리가 使用할 수 잇는 것은、몃隻이나 되느냐、

新義州港
客月貿易狀況

新義州港의 去四月中 輸出入貿易總額은 七百四十八萬八千百五十九圓인바 輸出額은 七十三萬八千圓으로 前年同月에 比하야 九萬四千圓이 增加되엿는데 其原因은 魚類의 一萬七千六百餘圓과 牛皮의 五萬五千餘圓 木材의 十萬餘圓이 主가 되고 또 輸入額은 六百七十五萬餘圓에 達하야 前年同月에 比하야 二百萬餘圓이 激增되엿는데 그 原因은 滿洲粟의 二百萬餘圓及 黍小豆輸入增加에 依함이며 又 移出入을 보면 移出額은 十六萬七千九百七十九圓으로 前年同月에 比하야 七萬餘圓이 減額되엿는데 原因은 米大豆의 移出이 現著히 減少된 關係이고 移入額은 十二萬九千八百五十六圓으로 前年同月에 比하야 七千餘圓이 增加되엿는데 原因은 時節關係로 麥酒의 移入이 增加됨에 依함인데 以上 重要한 輸移出入品目은 左와 如하다더라

◇輸出之部

魚類	一七、六三三	牛皮	五五、八六六
毛皮	三三、五六八	綿絲	一七、三六四
세멘트	二一、五九五	木材	一○三、五○三

◇輸入之部

粟	三、一○七、九八八	黍	四六八、七四○
小豆	四六五、五六三	鹽	三四四、五○○
柞蠶絲	一、九○四、七九九	石炭	三一九、四○七
木材	三三六、五四○	豆粕	六六七、七一八

◇移出之部

米	一二八、六六八	大豆	三三、四四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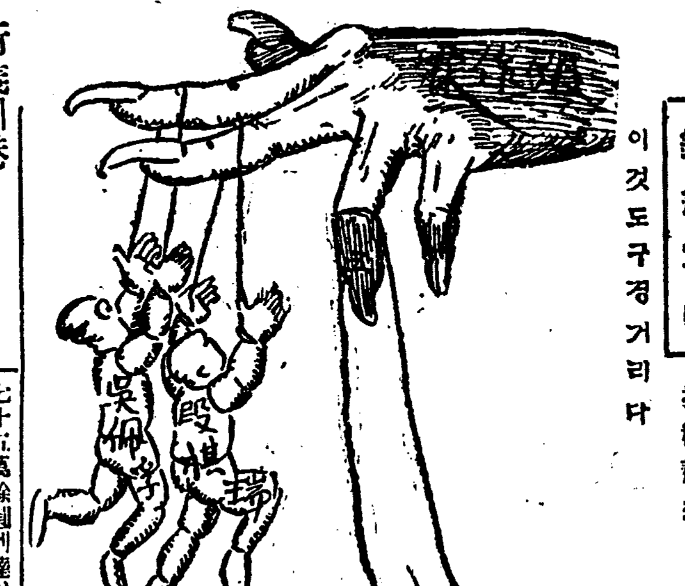
◇移入之部

淸酒	八、四一九	麥酒	一四、四四九
絹織物	三八、四五五	鐵物	八、七四五

(新義州)

鐵筆寫眞

投稿歡迎



이것도 구경거리다

猛然一擊·病菌四散

ヨーヂ水
요ー지수

『皮膚病』은 簡易하게 治療됨

最히 皮膚病이 蔓延하는 只今 皮膚病에 煩惱하는 人士는 곳 『요ー지水』를 試用하시오

『요ー지水』는 最新의 處方과 純良한 主藥、正確한 調劑로써 完成된 皮膚病簡易療法藥이라、아모리 頑固의 皮膚病이라도、그의 强大한 殺菌力으로 可驚할만치 迅速히 氣分조케 治療되며、그뿐 아니라 痕跡을 남기지 아니하야 他에 無類한 眞實한 特効劑이올시다

主効
○피풍 ○濕疹 ○疥癬 ○어루러기 ○陰蝕 ○버짐 ○搔痒症 ○腫氣
蚤蚊毒虫의 刺傷
其他 皮膚가 弱한 人士

定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四圓

製造元 賣藥 發賣元 玉置合名會社 東京日本橋區瀨戶物町 振替 東京 七二番

○全國의 著名藥店에 잇소

皮膚病

義烈團決死隊五名

國境을넘어內地에潛入

新義州로京城外지警察總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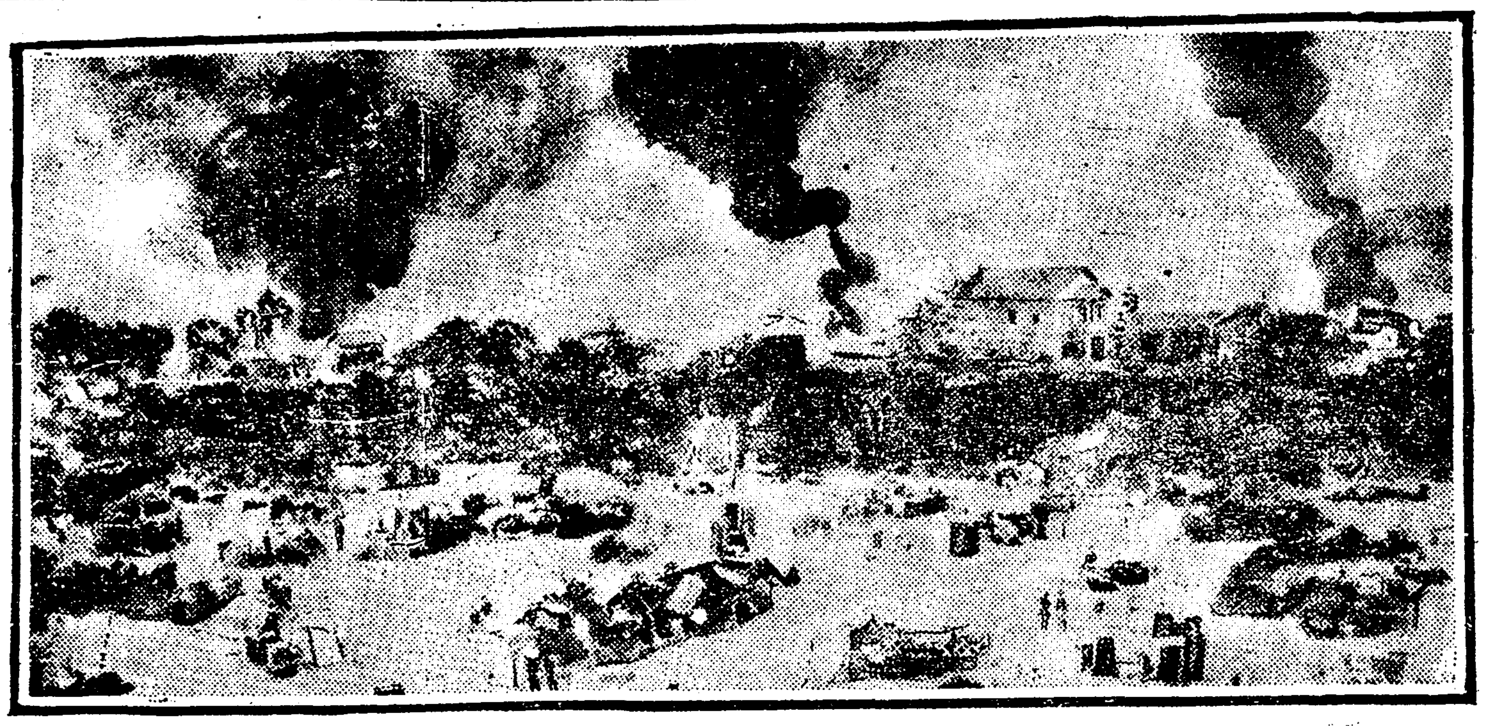
련일삼엄한 정보를밧는 시내각서고등계의 공긔는어디업시긴장되엿는바 모방면의타문에의하건대 의렬단원(義烈團員)리현(李鉉)(二三)외사인이 결사대(決死隊)를 조직하야가지고 다수한폭탄을휴대하고 전긔리현을대장(隊長)으로하야 조선안에 중대계획을실현코저 약사오일전에 교묘히국경의경계망을돌파하고 압록강을건너드러온형적이확실한데 현금그들은어느곳에잠복하엿는지 이에초조한 신의주(新義州)로부터 경성세지의렬도연선의 경찰당국은물론이오 이미 공주(公州)충남경찰부(忠南警察部)세지 동원이된모양이라더라

忠南의情報로 各署非常活動

稷山에出沒한獨立團

경성시내에잠입한듯하다고 각서경찰이비밀히활동개시

폭탄(爆彈)을가진 의렬단원(義烈團員)이시내에잠입하엿다 하야방금각경찰은침식을잇고활동을계속하는중인데작이십오일에 충남(忠南)경찰부로부터 다시모종네사건의 수배가 각서고등계에이르러 경찰은 이를절대비밀에부치고 암암리에 이사건에 대한 활동을개시하얏다는바 이제이사건의내용을들은즉 지난사월 이십사일새벽두시반경이나 되며 텬안군직산면자은가리(天安郡稷山面自隱加里)부호 류봉구(柳鳳九)(三三)의집에 나희 삼십세가량이나되는 청년한명이 입에호각을물고 올흔손에 두자가량이나되는 단도를든후 긘긔류씨의장남병언(柄彥)(三三)과그부인이 동침하는방에드러와서자긔사진(寫眞)과다른두사람의 사진을부처상해(上海)림시정부에서 군자금모집원(軍資金募集員)으로증명한다는 문구가쓰인 증명서를 내여보이고군자금으로 일만원을 대공하되만일당장에 그돈이업거든 그반액오천원만 위선내인후 남은오천원은금년가을에 내이라 협박함으로병언부부는당장에돈이업슴을말하고다유날로미루자그는쾌히승락한후 도라갓는데 그후이십육일새벽에 다시왓섯스나 병언의안해만잇섯슴으로 그대로갓는바 금월초사일에 그는역시갓흔시간을 긔약하야 친일모양과조금도다르지안은 차림을 하고 차저와서 군자금대공을강요하엿스나 주인은 작년년사가흉년이며 금년춘궁(春窮)이 심한것을말한후오는 팔구월로 긔한을미루자 그는다시그럴것이라고쾌락한다음에 자긔네는 여러명이도처에 파견되엿는데 대개는 경성에서회합하기로한것이라 그곳으로가서 가을세지 기다릴터이라하고 그대로가버렷다하며 세차례이나 가튼사람이 혼자드러왓섯스나 집밧갓헤는 이삼명이역시망을보는것갓더라는바 이들의행동으로보면 결코 시국표방강도가아니요 독립단임이 확실함으로 이에충남경찰부는 활동을시작한것이며 그들이 경성시내에 드러왓다할도 의심업는사실이라하겟다더라



◇일본진재의참적=화렴중의풍강뎡=

平壤에서京城에 長電話로情報交換

눈코들새업는종로서삼륜주임

리경식사건(李京植事件)부호협박사건(富豪脅迫事件)김상옥보수단(金相玉報讐團)참업결사등으로 방금눈코들사이업는 시내종로경찰서에서 작이십오일 저녁에북촌(北村)일대를돌더잣고수색기라의 활동을 계속하엿다함은 금일본지조간에 이미보도한바인데 금이십륙일오전 열시경에평양(平壤)평남경찰부의중촌(中村)경부보로부터지급경비전화(至急警備電話)가 삼륜(三輪)고등계주임에게 이르러약삼십분이상의 긴시간을 밀담하엿는바 이뎐화의내용은 자세히알수업스나 금일조간에 보도한바와가티 수일전수촌경부보가 경성에서살아간 류보(柳某)의 사단(興業團)박필근(朴弼根)(三三)건에 관련된모양이며 다시후업이가 평양을벗서나 경성으로다려온것을급히통지한듯하더라

興業團員朴弼根

경성에잠릭햇다는평남정보

중국간도 륙도구(中國間島六道溝)에잇는 조선독립단데인흥업단(興業團)원박필근(朴弼根)(三三)은 조선내디에잇는부호(富豪)귀족(貴族)대관(大官)등을암살하야 모중대목뎍을 관렬코자본월 중순경에 평양(平壤)부내에 잠입한것을 평안남도경찰부(平南警察部)에서 탐문하고즉시각처에 비상선을 느리어뎌포에 로력하든중 수일전에돌연히 경계선을 돌파하고평양을떠나경성으로 향한형적이 보히는고로 평남경찰부에서는 즉시경긔도경찰부에 급보하엿다는바 이급보를접한 경긔도경찰부에서는렬야 활동중이라는데 그는본래그단데의 명의가 실업단데의명의와 근사함으로 본부와서로 련락을 취할때에는긔보한바와가티『주식이잘 모집안되니모집원을더보내라』는등 기타여러가지주식회사창립에관한명사로써서신을왕복한다더라

外人○○計劃

○○문데를이르키고자

남북만주(南北滿洲)를비롯하야중국(中國)로령(露領)방면에잇는 각○○단데에서 모중대목뎍을가지고조선내디에침입하엿다하야 각도회디경찰서는 눈코틀못뜨고대활동중이라함은 별항보도한바와갓거니와 중국상해(上海)에잇는의렬단(義烈團)원리재순(李在淳)리동식(李東植)등두명은조선내디에잇는각국령사(各國領事)를○○하고다시일본동경(東京)으로 건너가서각국대공사(大公使)를또○○하야 일본과렬국사이에 ○○문데(○○問題)를 이르키어 자긔들의 목뎍을관철코자하야 수일전에국경을넘어경성으로향하엿다는데 이급보를 드른경긔도경찰부에서는 여러가지 중대사건으로정신을못차리든중또이와가튼급보가왓슴으로 대경실색하야엇결줄을모르며 더욱 활동을맹렬히계속중이러라

雲山地方에 武裝團

경찰은활동중

십구일 하오십일시경에 평북운산군운산면 정동동(雲山郡雲山面貞洞洞) 강의백(姜義伯)의집에무장한 독립단일대가 드러와서집안사람을 협박하고 금품을빼아서가지고 도망하얏는데 북진서(北鎭署)에서는 범인수색에로력중 이라더라(평양)

運動競技

對米野球戰과

培材의陣容如何

培材對在京米國人野球戰은豫定대로二十七日午後四時부터市內貞洞培材球場에서行할터인데今夏野球시즌에가장볼만한競技임은勿論이오昨年中에我球界의覇權을持하던培材軍은今春에至하야成龍華君을省嫁으로보내고猛打者李深敏을延專으로其他有數한韓○虹伊君外數名이卒業하얏슴으로그後의陣容이果然엇더할는지可觀이며今春以來의猛烈한練習은決코昨年먹버에遜色이업다한다選手의氏名은左如下

投手丁龍俊白基珠▲捕手金洛顯▲一壘張炳善▲二壘趙添順▲三壘金信渭▲遊擊白基珠▲左翼洪鳳基▲中堅朴正根▲右翼李世文

5對2로慶應再勝

日本五大學「리ー구」戰慶應立第二回野球戰은二十五日午後三時부터池袋球場에서行한바五對二로慶大再勝하다(東京電)

次回極東競技는 上海? 北京?

其他몃가지發表

極東競技大會의第七回의經過는旣報와갓거니와第八回의開會期는一九二七年九月中에上海나北京에서行하며第九回(一九三○年)에는日本東京에서行하기로되엿다그런고로從來의五種과十種과八百米一千六百米「리레」의四種은陸上中「트락」과「필드」에서別立하기로되얏다

共產黨員도潛入?

시내각서에서또한경계

로령연해주(沿海州)에잇는공산당지회의 중요인물 최호림(崔浩林)은 그부하 오송환(吳淞歡)외수명에게모중대사명을주어조선안에파견케되여 그들은이미간도룡정촌(間島龍井村)으로출발하엿다는데 이정보에접한 두만강안 경찰서에서는경계가엄중한데 시내에드러오지나 아니하얏는가하야 여러가지정보에틀림업시 각서경찰의공긔는한층더긴장하여젓다더라

統義府員崔漢京

팔년징역을불복하고공소

신흥군북산면 광대리(新興郡北山面廣大里)사는 대한통의부원(大韓統義府員)최한경(崔漢京)(二七)은 대한통의부의 지휘를바더 가지고 류춘경(柳春京)외 세명과함께 조선독립군 자금을 모집코저폭탄을가지고 압록강(鴨綠江)을건너와서 함흥(咸興)흥창(興昌)에서 군자금을모집한후 도라가다가 데포되여 함흥디방법원에서 지난십삼일에 징역팔년의 판결언도를바덧는데 이에불복하고 수일전에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엿다한다

軍資募集、主義宣傳

間島에서八名控訴

모다경성복심법원에

근래에 경성복심법원에는 국경일대와간도(間島)등디에서군자금(軍資金)모집과공산주의선뎐을하다가 데포되여 각디의디방법원에서 판결을밧고 불복공소하여온사람만 하여도 매일수삼건이상식 되는모양인데 이십오일에도 아래의 여덜명의사건이넘어왓다한다

◇六穴砲를가지고各地에서軍資를募集한大同會員五名

▲咸北明川出身間島延吉縣尚義社三個頂子 朴慶根(二四)(一審에서二年六個月懲役)

▲咸北吉州出身奉天省安圖縣興道子 李春鄂(二八)(一審에서五年懲役)

▲咸南高原出身間島龍井村新村 張泰林(二五)(一審에서一年懲役)

▲咸南三水郡邑館面農幕里一三五 金仁楠(二九)(一審에서一年懲役)

▲平北義州出身奉天省安圖縣興道子 李永大(二一)(一審에서六年懲役)

◇莫斯科大學에入學코저莫斯科까지의旅費를求하고또共產主義를宣傳한三名

▲咸北明川出身間島和龍縣新社面南田洞 金良善(二二)

▲咸北明川出身間島和龍縣新社城吉村 金月龍(二一)

▲咸北吉州郡東海面龍原洞 權永周(二五)

(以上三名共一審에서三年懲役)

生後百日된病兒를遺棄

미근동한정근집에

이십오일밤 십일시반경에 서대문밧 미근동(漢芹洞)오십오번디 한정근(韓正根)의집 대문안에난지약백일가량되여보이는계집아이를 누가갓다두고 갓는데 그어린아이는병에걸려매우수척하엿다는바 방금그집에서 보호중이라더라

茅屋에도退去令

디주가경찰에의뢰하야 빈민일곱집에퇴거명령

南浦中國富豪의橫暴

진남포(鎭南浦)에서 여러해전부터 료리뎜(料理店)을 경영하며최근에는 큰부자가된 삼화뎡(三和町)덕원루(德源樓)주인양승산(楊承珊)은 수일전에 진남포경찰서 보안계(保安係)에 의뢰하야 비석리(碑石里)일백십삼번디 자긔의소유 토디안에잇는빈민들의 움막일곱집에 통지를발하야 매호에 한사람식녀자들을 경찰서로 불러노코토디를쓸일이 생겻스니 곳집을헐어가지고 나가라하매 권긔녀인들은별안간에 무슨영문인지를 아지못하야 이구동성으로각각그날벌어서 그날의목숨을 이어가기도어려운 처디에놀연히 움막을헐어가지고 나가라함은 적어도로유 삼십여명의 생사가달린문데인즉 차라리 디료(地料)를열마식몰어주마고하면서 곡진한사정을가추어 여러말로 애원하엿스나 마츰내 뎡이불문하고느커도 팔월십일안으로 움막을헐어가지고 나가지아니하면 모다헐어버리겟다고하야 그날그날의쇠잔한목숨을연명하기도곤난한움막의 빈민들은 설상가상으로의외의 퇴거(退去)명령을밧고디주와 경관의명령이라 엇절줄을아지못하고 공포(恐怖)와 불안한 긔분에싸여서 매우걱정하는중이러라(진남포)

牛肉價를나리고자 晉州에購買組合

형평사원들은직업문데라고 고기갑을나리고대항책협의

경남진주군 진주면(慶南晉州郡晉州面)에서는 근일새로조직된 공동구매조합(共同購買組合)과 형평사(衡平社)원간에『소고기』때문으로 장차큰 분쟁이잇스리라고일반은 매우주목 한다는데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진주시의 우육소비량(牛肉消費量)은상당히 만흔편인데 종래백뎡(白丁)즉 형평사원이 그우육판매업(販賣業)을 하야오나 매년수한 사람이각기 소(牛)를 잡아 판매하되 근래에 이르러 두세사람이경쟁뎍(競爭的)영업을하여서 경쟁뎍으로 소고기갑이 과히빗사지 안흔바 형평사가 조직됨과동시에백뎡아닌 판매업자의 몰락(沒落)과 동시에 형평사원들은 고기판매업을 독뎜케됨에 종래의경쟁뎍 상인이 판매하든것은 폐지하고십륙번지조(十六組)로나누어교번(交番)판매를하야 한번매한조는 십륙일후 또판매하게되야 하루판매로 십륙일생활을 하야감뿐아니라 부당한폭리를취하는일도잇지 아니함으로 차차오르든기 시작한 진주소고기갑은 장차 그칠바를 모르고 작고올라감으로 시민이나부근촌민은 소고기대신에 다른고기를 사거나 특별한일이잇기전에는 소고기를 사지아니하고편음 산청(山淸)군과사천(泗川)군에서 소고기를 사다먹는형편이니 비싸나 헐하나 아니살수업는 려인숙(旅人宿)와식뎜(飲食店)영업자는더욱 불평을가지게되는중 백뎡아닌 사람이 판매업을하고저한적도 한두번이 아니엇스나 경찰당국에서 허가치아니함으로

일반시민의불평은더욱

컷든바 일본인남목진순(楠目眞純)과조선인 오래익(吳來益)외십일인의 발긔로 지난이십삼일오후오시 동면대안동(大安洞)일백십오번디에서 공동구매조합창립총회를 열고 자본금이천원을 구식(口式)으로 일구의금액은 오원으로하야 규약통과(規約通過)와 임원선거를 하고 이십오일에는 반드시개업하되 그긔한까지 자금불입(拂込)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긔남목진순이가선대(先貸)하기로결뎡하얏는데만일

그조합이 완성되면그조

합원대부분이우육의대량(大量)소비자가 될것일뿐아니라 자본만흔 일본인이중심이되야 장차 엇더한 일을할는지도 몰음으로 결국 형평사원의 생계를위하는 것이라하야 형평사원들은 대책을 강구한결과 위선 사원의가산을 탕진할지라도 자본금칠천원을 만들어 그금액을희생(犧牲)할동안까지 소고기를 헐하게판매하야 전긔조합과 경쟁하다가 만일안되면 엇더한 수단을취하기로 결뎡하고 이십오일부터 종래 사십오전에팔든 소고기를삼십오전에 팔기로 결뎡하야 수천장 광고를시내에배부하며 전긔조합과 격렬히대항하리라더라(진주)

四十餘處出沒

대담하계절도데포

일뎡한주소와 직업이업시 도라다니는 림사준(林士俊)(三六)은 전후다섯번을 경찰서 또는재판소에서훈계방면과긔소유예를바든자로서 지난사월과 오월두달동안에 시내각처 사십여개소에서 일백오십여원어치의물품을절취하야 매도한사실이 발각되야 이십사일오후칠시경에서대문서원의손에데포되엿다더라

入場料밧는集會에는 學生의出場을拒絕

중등교장친화회에서결의의 뎡구대회를압두고큰문데

시내에잇는 열세곳의 사립중등학교교장으로 조직된친화회(親和會)에서는 이달초순에 뎡긔집회를 봉래뎡 양뎡고등보통학교안에열고 入場券을發賣하는運動會、音樂會、舞踏會에生徒를參加식히지안을일 이라는결의를하야 이뜻을각중등학교에 통지하엿다 그리하야 데육회(體育會)주최의데오회뎡구대회가 오는이십구일부터 동안 열릴터인바 그신청긔한인 이십오일까지에 이르도록 친화회에 참가한중등학교 선수의요구는간절하나 출전을 주저하는 상태에잇슴으로 혹은 개인의자격으로 출전하는 학교도여러곳인데 이로인하야 일반톄육계에서는 친화회의태도가 너무도혁식뎍이오 경기의 본정신을몰각한다고매우비난한다더라

體育會는別問題 다시의론될듯

◇親和會幹事 鄭大鉉氏談

친화회 간사요 데육회고문인보성고보교장정대현(鄭大鉉)씨는 말하되『작년에는 일본인 학교 [illegible] 일도간후 잇슴으로 그것을개별뎍으로 난홀것이업시 일반뎍으로 료금을 밧는모임에는 학생을내여보내지말자는 것이엇다 그러나 조선데육회의사업만은 절대로 그러한류에 혼입할수업슬줄로 자긔는안다 또미구에친화회집회가 열릴터이닛가 그때는무슨조흔 방책이생길듯하다』고하더라

顧問會에附議 데육회의난경

◇體育會委員長 金圭冕氏談

이러한결의로 말미암아데오회뎡구대회를 압두고 여러가지로교섭에 분주한조선데육회위원장김규면(金圭冕)씨는말하되『이번에 돌연히 그러한결의로인하야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학교가여러곳임으로 결국그 결의의 구실이래에 불과하다 학교는이 삽교에 불과하다 하여간데육회 사업이 적어도 조선민족으로서 엇더한 관계가 잇는가를안다면 그러한 결의를 려행할운운이붉가한줄로안다 입장료제도는 사회뎍으로 여론이만흐나 일본기타 외국에서도 아주 료금을징수한다 대회의진행과데육회유지를지배할재원이 잇기까지는 부득이한일이다 그럼으로 불원간본회 고문회(顧問會)를불러고해결책을 강구하려한다』

無電列車運轉

래월에일본에서

일본텰도성(鐵道省)에서일즉 계획중이던 무뎐렬차(無電列車)는이미완성이되여 지금은 톄신성(遞信省)으로부터오는 부속재료만잇스면 시험뎍운뎐을 하게되엿는데 그렬차는 『보기』차중에송신실(送信室)과수신실(受信室)이잇고 『안테나』(無線電信)는렬차우에세우게 되엿다는바 래월 십오일에 국부진(國府津)과 동경(東京)사이에시험운뎐을 할터이나 고동장과 하관사이의 특급렬차에는『라듸오』를장치한다더라(동경뎐보)

歷史著作裁判

황씨가승소

패소한편은공소할듯

보성고등보통학교교유(普成高普敎諭)황의돈(黃義敦)씨가 몃해전에 『조선신사』(朝鮮新史)라는력사책을저술(著述)하엿는데 그후부터 삼청동(三淸洞)일백사십륙번디 박해묵(朴海默)과 부내종로통에잇는덕흥서림(德興書林)주인 김동진(金東縉)등 양씨가『반만년조선력사』(半萬年朝鮮歷史)라는책을 발매하야 황씨의 조선신사를 약간개작(改作)하엿슴에 불과한것임으로 남의저작권을 침해(侵害)한것이라하야『조선신사』의저작자황의돈씨가 반만년조선력사의발행책임자인 박해묵과 그 발행인 김농진량씨를 저작권법위반(著作權法違反)으로 경성디방법원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수만원을 청구하는부대사소(附帶私訴)를 데긔하야 일반 력사가(歷史家)와서적업자(書籍業者)간에적지아니한 문데거리가 되엿다함은 작년부터의 보도와갓거니와 그후피고인 박해묵、김농진량씨는 여러번 경성디방법원 공판에서 심리를밧고 재판소에서도 증인(證人)으로

고소인인

황의돈씨는물론 운니오 뎡대현(鄭大鉉)조선성 오(小倉進平)박사 (濱田耕作) 고원훈(高元勳)등제씨의의견을드럿든바결국 이십륙일에 백(白)판사로부터판결이나기를『피고、박해묵、김농진、량명을벌금(罰金)백원에처한』이라하야 유죄판결(有罪判決)이낫다한다 이와동시에 각하되엿든 부대사소는 민사소송으로 다시데긔하리라는데 원고황의돈씨는 형사고소에 성공하엿슴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도 매우유망

하리라하나 유죄판결바든 전긔량씨는 불복하고 고등법원까지라도가서 흑백을가리겟다함으로 금후문데도 또한일반의주목을끌리라한다

日本但馬又强震

이십륙일오전한시반경에

이십륙일 오전한시 이십분경에일본 단마디방(但馬地方)에서 지난이십삼일과가튼강진(强震)이잇섯는데 인심이 대단히 흉흉하더라(풍강뎐보)

赤身으로騷動

조취디방강진

이십륙일 오전한시 이십분경에일본조취디방(鳥取地方)에격진이잇서서 시민들은 자다가말고모다 마당으로뛰어나갓스며 그중에는 벌거벗고 뛰여다니는사람도만허일시매우혼잡하엿더라(조취뎐보)

大阪에도感電

이십륙일오전 한시이십분경에 대판(大阪)디방에별안간또다시강진이잇섯는데 대판측후소(大阪測候所)의발표에의하면 진동은약십오분가량계속되엿스며진원디는역시단마디방(但馬地方)이라한다(대판뎐보)

名古屋地方

일본명고옥디방(名古屋地方)에는이십륙일오전한시이십분삼십팔초부터 디진(地震)이잇서시민을놀래엇는데 진원디는북서편이며 진동은이십일분십구초를계속하얏더라(명고옥뎐보)

金澤、和歌山

이십륙일오전한시이십분경에일본금택(金澤)디방과화가산(和歌山)디방에 디진이잇섯더라(김탁、화가산량처뎐보)

震源은海中?

우뎐박사발표

이십륙일 오전한시 이십오분경에이러난 격진에대하야 경도데국대학(京都帝大)우뎐박사(羽田博士)는말하되『진원디는경도서북쪽 일백오십킈로되는 바다속이라』하더라(경도뎐보)

學校에窃盜侵入

서문서에데포되여

시내명치뎡(明治町)에잇는텬주교회경영인계성학교(啓星學校)에는 지난사월십사일밤 열한시경에 절도가침입하야 교과서재봉긔계기라 비품다수 시가백여원어치를 도적한사실이 잇는데 각서에서는 범인데포에 로력한결과 이십오일오후칠시경에 서대문서형사의손에데포되여방금 취됴를계속중인데 여죄가 만흔듯하다더라

東亞盟罷事件 報告演說開催

명야청년회관에서

시내조선문신문 사회부긔자로조직된텰필구락부(鐵筆俱樂部)에서는 금번동아일보 사회부긔자맹파사건에대하야 그진상을세간에알고저『동아일보맹파사건진상보고연설회』(東亞日報盟罷事件眞相報告演說會)를 이십칠일오후팔시에 종로청년회관(鐘路靑年會館)안에서개최한다는데 입장은 무료(無料)라더라

普明校一週紀念

시내 서대문밧보명학당(普明學堂)에서는이십팔일오후칠시반에모화관독립관(獨立館)에서동교창립일주년축하식을거행하고여러가지자미잇는 여흥도 잇다고

吳濬彬被殺事件

中國側은責任廻避

식염밀수입자로총살햇다고 소금한섬을증거로갓다노아

지나간십칠일 간도동포(間島同胞)오준빈(吳濬彬)씨가 아모리유도업시중국순경(中國巡警)의 함부로란사(亂射)하는총알에마저서 무참히사망된사건과 이로인하야 디방주민의여론이 극도에달하는동시에 남양평민회(南陽平民會)와역주민대회(住民大會)까지열기로 결뎡하엿다함은 이미본보에 루차보도한바어니와 그후중국측태도에대하야 다시됴사한바에의하면 순경은결코고의(故意)로총살하엿슴이아니라 식염(食鹽)을 밀수입함으로 정당방위상(正當防衛上)할수업시 발포(發砲)한것이라고 책임을 회피코저하는동시에 어머서식염한섬(一石)을가저다노코그것으로 증거품을 삼고잇는데 피살당시 현장에서 목도한사람의 말을듯건대 오씨는한되의소금도 가지지안하엿다더라(간도특신)

落雷로火災

집한채가전소

지난이십이일 오후네시경에 평남양덕군대륜면봉송리(平南陽德郡大倫面封松里) 이백팔십오번디손영섭(孫永燮)의집에벼락이나려서 가옥이전소되고 그집에잇던주인의처리찬섭(李贊涉)(四五)장남인술(仁述)(三)차남경술(淸述)(四)장녀성섭(聖燮)(十○)네명은 한시간동안이나 긔절하얏다가 겨우깨어낫는데인축은무사하더라(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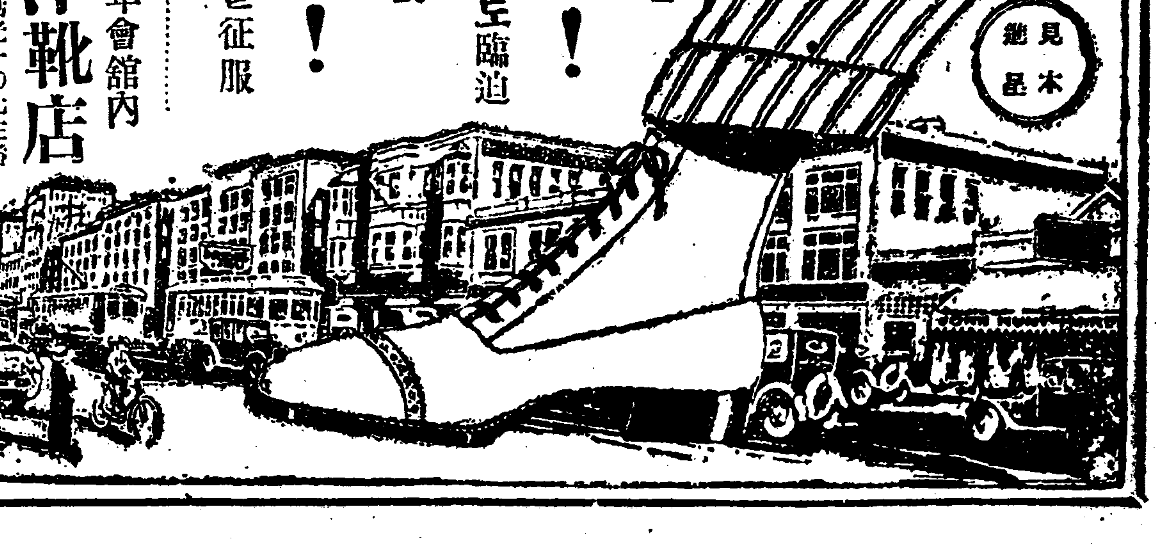
◇正誤 昨日發行二十六日附夕刊第二面安達得公判記事中判決言渡日인『륙월삼일』은『륙월이일』의誤植이기에玆에訂正함

종명자

▲종로경찰서의삼륜고등계주임은정보로뎐화로남북에서오는놀라운소식에머리를알는모양、따라서신의주로부터경성外지렬도연변의각경찰은거의긴부가활동을개시한모양、이러해도왜칭대에서는『시국안정』을선뎐해서면하겟지

▲『정보』들오는것은례사인데신문긔자들은공연히떠든다』고경찰편에서는말을한다고、정보에놀나는경찰은헨놈인고

▲시내각사립중등학교교장의모임에는학생의참가를아니식히기로결의하엿다、여러가지사정으로보아다소제한할필요가업는것은아니지만은너무코아모모임에나참가를거절함은완고한생각이아닐는지



지터가는 綠陰! 여름준비도臨迫

世昌特製 흰신! 洋靴界를征服

京城鐘路靑年會館內 世昌洋靴店 電話光一○七三番 振替京七八七八番

每日一錢의好事業

一般金融貸付 不動產抵當 一般有價證券買賣 其他商品買賣 割引販賣

匿名組合 大命金融社 대명금융사 京城府光化門通二一三番地

社長 閔丙漢 事務兼支配人 金爽圭

國漢文을略解하는女子社員若干名을採用할터이니希望者는履歷書携帶來談

改良細白苧

本商會에서發賣하는改良苧白苧今回原產地로부터多數輸入하와左記特價로發賣하오니即速多數需用하심을敬要

定價

天品(周衣二件) 九圓

地品(周衣二件) 八圓五十錢

上品(周衣二件) 七圓二十錢

並品(周衣二件) 六圓五十錢

京城西大門町一丁目 直輸入商 東英商會

케ー블타이으式

舶來케ー블타이으商 眼鏡專門 栢林社 京城鐘路二丁目八三番 振替京城一三五一八

여러분의期待하시든케ー블타이으式眼鏡이豐富히入荷되엿슴니다

本品의特長

一、現型과如히最新流行眞圓型

一、脚속에잇사지쇠를너허絕對로부러지지안음

一、脚의中央에잇사지細型과如히쇠아서코허리와귀가絕對로압흐지안음

一、더구나玉子는眼科에適當히鍊磨하야保眼上에第一最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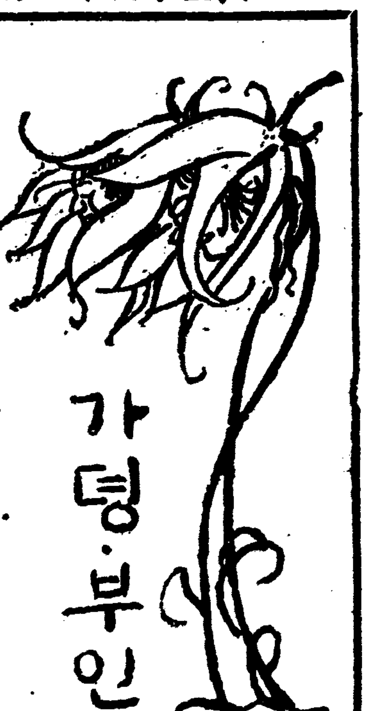
定價

特價五圓八十錢 極上人造水晶玉入

特價九圓五十錢 極上天然水晶玉入

可及的要先金代金引換時는送料五十錢加算

가뎡·부인



자녀를기르는데 (六)
어린아이와학교다니는동안

어린아이가 학교에다니게 되면 낫에는여러시간을학교에서보내게됨으로 학교안의 위생이대단히긴요하게됩니다 그러치만 가뎡안에서 가뎡위생도 더욱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생활을하기때문에 밧는영향은 어지간히만흠으로 그중에서 위해를밧는일이만습니다 가뎡에서는 이런방면에충분히주의하야되도록폐해가업시하여야됩니다

학교생활이시작되면이때까지집안에서 제풀로뛰고 놀든때와달라서 여러가지로 영향을입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뎡한시간은걸상에안저잇서야함으로 근육(筋肉)이잘발달되지아니한어린아이는 피곤하기가쉬웁고 또숨쉬는것도 뎨한이되기때문에 건신에피로는것이잘되지못합니다 그외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전염병(傳染病)을올리는일이잇습니다 그러나유치원이나 소학교에다니는아이가병이들엇다고 그것을 곳유치원이나 소학교에다니기때문에병이들엇다고잘라말할수는업습니다 그런고로 이러한경우에는적어도

一、어린아이가유치원에서불량한영향을밧지아니하엿는가

二、그아이가입학유예(入學猶豫)가되지 아니하엿는가

三、입학할때에그아이는허약하엿든가

四、초학년의학과는 위생뎍(공부하는시간과쉬는시간이뎍당하엿든가)이엇던가를잘료사하야보는것이매우긴요합니다

우에말한것은 어리고 약한아이에게대한일인데 학교생활 이라는것을잘검사하야생도가몸에맛는영향을 여러방면으로 관찰하는것이 조켓습니다

누구든지성공하기쉬운 봄누에치는방법(三)
【올린뒤며칠만에고치를따나?】
◇東京에서 李晟煥

자오랫동안 누에치고 또올리고올린뒤의 보호도 잘되엿다하면 남아잇는일은오직 고치딸일이외다 이것은별로 문뎨될일이업슬것가트나 역시잘못하면 안되는일이잇습니다 넘우 일즉이따는때는 고치사는 사람편에서실혀합니다 이것은누에가 고치는 다지엇지만 아직「번덕이」가되지못한 때임으로 고치의무게가만하집으로 그럼니다 그러라고또넘우 늣게딴다하면 고치근량이감하는 까닭으로 고치알수는갓지만 실디수확이 적은 셈이됩니다 이때는사는편은 조하하겟지만양잠가는손해가되나니이가운데를 일치말음이 가장긴요한일이외다

보통누에는 올린뒤의 온도가칠십오도쯤되는때는 밤낫 이틀혹은 이틀반이면 며개고치를짓는것이외다 그뒤이주야를지나면두에는「번덕이」가됩니다그런으로 고치는올린뒤 오륙일반에떠면될것이외다 그러나 고치의간조의관계도 잇고해서 올린뒤한주일을되여서 고치를 떠는것이가장 뎍당하다생각합니다 팔지안코 내집에서말리어서 쓴다하더라도 일주간이되여서 떠는것이조습니다(終)

× ×

부언(附言)만치못한 지면을가지고 넓은범위의 양잠법을말하라니까 자연히말을 못하는섭섭한 모퉁이가 만흣습니다 이것도제하고 저것도제하고오직 목컨에다닥친 문뎨만을따서 그것조차비상히 간단하게 쓴것이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으신여러분 으로서양잠에대한 개념만이라도 가지시게되엇다면 만행으로 생각하오며 좀더자세하게 알고자하시는분에게는내가저술한「최신양잠법(最新養蠶法)」경성부 숭인동 조선제사주식회사발행정가륙십전송료사전(京城府崇仁洞 朝鮮製絲株式會社 發行 定價六十錢 送料四錢)」을 주문하야보시오이책은 내가 즉컨농촌으로도라다니면서 강습회에서 강의한것임으로 누구든지 알기조케되엿습니다 그리고 양잠에대하야 이신문지상에 실린것이거나 또는 책가운데에서모르는일이잇거든좌기쳐소로질문하여주시면아는범위에서대답하겟습니다(五月十四日)

(東京市外中野町 千光前三〇三八番地川崎方)

개아미이야기
◇인도나미국에서나는 농사짓는개아미(三)

미국『텍사스』주(州)에는농사개아미라하야 농사잘하는 개아미가잇습니다 이개아미는 둥근포대(砲臺)가티생긴큰집을짓고개아미가 먹는벼(稻)씨를 뿌리어노코 그집가에일곱 여덜갈래의길을 만듭니다 이길에는불한포기가 나지아니하게 쓰러노앗기때문에 대단히 홍작한것잇니다 그래서 심은후로거더드리기까지손으로 갓구고풀이나면 뽑아버리고나무가나면그냥새를불임히 떠버립니다 그리는동안에버가익움으로그것을거두어집안에저장하는것인데 그방법은아조쏙쏙맛게하야 사람이 농사짓는것과별로다름것이업습니다그개아미집속에는광(貯藏所)도잇고굴길도잇서서배우잘만드럿다합니다

해와달 [童話] (二)

거인『오라이언』도몹시사냥을조와하는사람이엇기때문에일시는『아레미스』의사냥을도와준일이잇섯습니다『아레미스』는그를다른사람사랑하듯이 사랑하지만은눕시랭닥하기 때문에 누구오게던지 더정이붓게는 하지는아니하엿습니다

얼마지나서『오라이언』은달(月)님과 작별하엿습니다 그는바다가운데잇는 엇던섬나라 임금님의따님과 혼인을하러 하엿습니다 그임금님이 말하기를 자긔섬의여러못된 짐승들을모다 내쏘차주는사람이 잇스면 혼인을식히리라고 하엿습니다 그래서『오라이언』이 그러케 하엿것만 임금님은 자긔가한말을 직히지아니하엿습니다

사위를 삼는대신에 그는『오라이언』의눈을 빼노앗습니다 그러나『오라이언』은『애포로』에게 가서다시보도록 고처습니다

그래서『오라이언』은 다시『아레미스』의 사냥을 도으려가게되엿습니다 그러나 『애포로』는 그러케하는것을 조와하지아니하야 또차버리려 하얏습니다 그러나자긔손으로 그때케하기가실흣섯가『아레미스』를식혀쏘조려하엿습니다

하로 어느날『에포로』가 물럿습니다

『누의야!』

『엇던사람들은 네가나와비등하게활을잘쏜다고하는데우리보기에는그러치안코나』

『나는엇재그러치안흔지 좀알앗스면조켓서?』

하고『아레미스』가말하엿습니다

『어대한번보지』

하고『에포로』가말하얏습니다

『저긔저편바다에 검은점이보히지?』

『응응-보히어』

하고『아레미스』가 대답하엿습니다

『그것을네가마치겟니?』

『아-마치고말고』

하고『아레미스』가대답하엿슴니다 그리고활을들고 한살을쏘앗습니다 그살은 쏫쏫히검은점을뚤코나갓습니다

그런데그검은점은『오라이언』의머리엇습니다!그때마침『아레미스』가못보던임금의 나라에서나서『아레미스』에게로도라오든때이엇습니다 그러은 단번에몸속으로 드려가그후로는『오라이온』은도모지다시보지못하게 되엿습니다

『아레미스』는자긔가한일을발견하엿슬때에진실로슬펏습니다『아레미스』는『오라이온』을영으로다시 다리고가오지못하야 하늘로 다리고갓습니다 그래서별사이에두어이때까지 거긔에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청명하게 개인겨을밤에 하늘을처다보면 그것을보실수가 잇슬것입니다 바로그의압헤 그의개가잇습니다 우리는그것을텬랑성(天狼星)이라합니다

―씃―

雜貨商에窃盜

서대문밧죽첨뎡이뎡목(竹添町二丁目)사십삼번디잡화상송교명(宋敎榮)의집에는 이십사일밤에절도가관장을뚤코 침입하야 물품삼원구십전어치를절취하여갓다고

외국에노는(三) 신녀성
지식을구하야 상해에서비행긔배호는중인 권긔옥양

조선에처음인 녀류비행가 권긔옥(權基玉)양은 금년에 중국운남륙군 항공학교(雲南陸軍航空學校)를졸업하고방금그학교에서 비행긔를 련습하는중이다그의고향은평양이니긔질이

듣든하 고담대하고녀성적긔분이적으며 한번뎡한 일은긔어히하고야마는것이그의텬성이라할수잇다 그는일즉이 군자금모집사건(軍資金募集事件)으로 일년반동안이나 자유업는몸은옥생활을할때에도항상즐거운마음으로 그날그날을보냇슬 뿐아니라 엄중한감시자의 눈을피하야 아츰에동편집저녁에 서편집녕처업시쫏겨다닐때에도오히려태연한심사로 지내 인것이다 일천구백이십년십월에그를포박하랴고 그의뒤를밟던엇던형사가달려옴을보고 두길이나 넘는담을뛰여넘어그길로진남포로다러나서 목선을타고 상해로드러간것이다 그가중국을 가기전에격근풍상도과연허다하거니와적수공권으로 뛰여드러간 녀자의몸으로써한푼의학자를

도아주 는사람업시벌서륙년동안이나 학업을 계속하는그의열정과인내력은과연감탄치안을수업다 그는어려서부터 글쓰기를 매우조와하엿고 말도잘하얏스며 백사에가감으로 못하는것이업섯다 그와적상을 가티하고버는를가티하던그의친구모씨의말을듣건대 그가평양숭현녀학교(崇賢女學校)졸업당시의성젹을 보면 한과뎡이라도우등못수아닌것이업섯다한다 그리고그가중국으로 드러가서 즉시항주홍도녀학교(杭州弘道女學校)에입학하야 또한우량한 성적으로졸업하엿는바 그의성적이 너무량호하기때문에 엇더한 대학에서던지 그는능히무시험으로 입학할수잇섯다한다 그러나 그는한번푸로페라소리를공중에드날리고녀장부(女丈夫)의긔세를세계에떨처이라는뮈대한포부와

고원한 리상이 그의마음거문고줄을울리고또울리어주엇슨즉문학이니음악이니 모든것을 다내여던지고■상해자동차학교에 입학하야 하날에서날기건에 셩에서 다라나는 공부를 하엿다 뚝뚝하고 무정한중국남자들틈에 참해 일속으로홀도그속에 섞기여공부 하는그의마음이 얼마나 적막하고쓸쓸하랴마는 그는추호도 이청의구별이업시 오직배호기에만 로력한다 디금그의불철적 생활은떡비참한 지경에이르럿다 그가고국에잇는 엇던자긔 친구에게보내인 편지의 일절을보면『사랑 하는벗아-나는오날오십리밧게 비행긔를 련습하러나갓다가배가 곱하서 도라올수가업섯다

비행긔 타고 도라올수 업섯고거려서 도라올수 업섯다누가나의이런 담담한 사정을알어주라? 데힘하여보지 못한너로서는 연구할수도 상상할수도업스리라 마는성공을 긔대하고밥는길이나 모든것을 오히려깃붐으로생각한다』하엿다이편지를바든그의 친구는 여간한일에자긔의사정을 남에게 말하기실혀하고편지를 쌋도업서 절반는채못채우는 그로써 얼마나사나운고생속에 싸혓기에……하며그의 소식을 못는괴자를향하야한줄기눈물을금하지못하더라 아!고로지못한 이세상에 한낫성공을 희망하고 고생을락 으로아는 권긔옥양―― 그의압길이잇서지이다(사진은권긔옥양)

―조선에― ○∘처음생긴∘○ ―녀자비행가―

멍텅구리 활생애편 (172) 도언결판

(一) 재판정에서 아들버릇을가르처달나는 멍텅의아버지 (二) 무죄판결을애걸하는 멍텅이어머니 (三) 무죄를변호하는 멍텅의변호사 (四) 판결을언도하는멍텅의재판장

藝術 現代教育의缺陷과救濟策 (十一)
在東京 朴最吉

卽氏의 社會觀은 科學派의合致한 理想境의 憧憬이엿다 故로 몬저 社會그물건自體卽當時 惟物的 社會를打破 하自하야 그로써理想을 引衛的社會運動에까지 到達한일繼한『윌리암、모리스』氏의 藝術化를 要求하엿다 그러나 그人間의 唯一幸福境은 藝術에잇다고생각하얏다 現代資本主義文明이 一般人生의 希望하는樂와 勞働의快樂 勞働의藝術化를 奪取하고 따라서生活上의 美를 破滅하고 多數人을 窮境한 境遇에 沈沒케하는現象에 對하야 큰 義憤을 품엇다彼의社會改造의 根本精神은 生活의美化와勞働의 快樂化이엿다 그남아地方自治團을社會融合의基礎로하고 中央集權的政治乃至產業統治를 否定한것과 또그現實的手段으로臣只實行에만 着手치말고 徐徐히社會主義的教育을 實施하고社會主義者를 養成하려는것은第二次的이엿다 左右間 彼는眞正한藝術家로서 猛然히街頭에나아가겟다 그것이또 眞正한 社會主義者이엿다 彼에게는 말치못할 偉大한人間愛의눈물이 가삽가온네 充滿하얏다 이러한 彼는 現代社會制度의矛盾과 現代人의非人道를良心에참아 傍觀하고잇지못하얏다 彼는 眞正한 藝術家임으로 참社會主義者가 되얏다 吾社會所謂 新文人은 그것을이가지못하야小安에Intoxicate하려고하며 象牙塔에 避身浪하러는『데카덴트』 氣分이 보임은 慨歎不已할바이겟다 吾人은眞詩人이되며 眞文人이되어야하겟다 이것은 이만하고

또最近에 東京御茶水附屬小學校主事 北澤二氏가 歐羅巴敎育視察談에依한즉 科學을萬能으로아는獨逸에서도 淡堡를中心으로한 伯林 『부레-멘』『격코이나삽소』等地學校方針은情操敎育에 留意하되 特히對象을 德育敎育에 留意한다고말하얏다 左右間 現代主智的敎育偏重을全世界가漸漸 解달아올것을明白히 預言하기를躊躇아니하노라

結 論

最後에 一言을 父兄諸氏에게 告할것은 敎育은 他日的을爲한 敎育이아니고 敎育自身을 爲한敎育인줄 明白히理解하야달라는말이다 敎育은決코社會의地位 名譽 金錢을爲한敎育이아니다 『혼、라스킨』氏가 一八六四年 十二月六日만체스터ー市 『라스홈』公會堂에서 『王者의寶庫』라는演題에 對하야 講演할때에 이世上敎育의目的은 立身出世의榮達이라하고稱快하게 諷刺하얏다 立身出世는 社會에著名하게되고――卽他人에게 尊敬을밧고地位를 엇는다는意味며 立身出世는 大槪金錢잇는것을 意味하는것이아니다 金錢이만라는것을 世上에 알리는것이라하얏다 또大目的을達하는것이아니라 大目的을達한것처럼世上에 보이고자함이라 觀破하얏다 이『라스킨』氏의 漸漸가오즉當時에만合當하라 六十一年後今日에도 亦是 合當할것이다 엇지慨歎할바아닌가 今日은六十年前보담 漸漸 虛僞의世紀로 들어가니 實質한虛中에 잇는『라스킨』氏靈이 이것을안다면 엇지安眠할수잇슬가? 이와가튼 그릇된敎育은勿論父兄이나敎師의罪만아니겟다 이것은 社會制度가 그러케맨드는것이다

學校에서 注入하는智識을 强誦多記하야 競爭이甚한 學校에 入學하면 無上의榮光으로알며 또卒業後 社會의 高等地位를 엇게하는것이 今日敎育의 全目的이되얏다 이러한關係로 自然히敎育은 智的에偏重되야 高貴한 人間性의情操陶冶할 餘暇가업시 되얏다故로 現代는 人物이야 엇더하던지 學校試驗에만 잘通過하는 小才子가 社會의 優越權을 占領하게되고 또 요러한者가 社會의 重要地位에잇게되니 그社會가 또엇지圓滿한 社會가될가? 참慨歎할바이다 더욱 朝鮮은 古來로科擧制度가잇슨以後로 官吏慾榮하는 觀念이 아즉도 우리머리속에 固執하여 잇슴으로더욱 생각할必要가잇다 왜그러냐하면

父兄이나 敎師가 敎育은 他日的을爲한敎育이아니고 敎育自體가良好한敎育인줄 意識하고 아니하는데 그子弟와生徒의敎育에 大影響이잇는緣故다 左右間 今後의敎育은 從來主智的敎育으로된Mind(心意)의人物보담Heart(感情、愛情、)의人物을養成하고 Spirit(靈、精神)의人物을養成하여야하겟다 이Heart,Spirit의人物을 養成하자면 반듯이藝術敎育 (情操敎育)에依하는同時에 道德 宗敎敎育도顧慮하여야하겟다

以上은 現代智的敎育의偏重을 말하고 多少救濟策의卑見을말하얏다 이外에또現代敎育缺陷 數點에 着想한것이잇스나 時間이不許함으로 後日의機會에 미루우고 이것으로씃을막노라

一九二五、五、一二

락화 落花 (八六)
봄바람 번역

백수는말을이엇다

『그러나가말이야 지금집으로가서 옷이라도갈아입고 막차가다을때쯤 다시나와서 직히게나그려』

『올여 그거야용이하지그러나 오늘저녁에 만일오지안으면?』

『오늘저녁에오지안커든 다른길로 마차나부엇으로 온줄로처고래일부터 각처로 도라다녀야지』

『자아 각처라는것이도모지한이잇나』

『무얼그러치도안으니 흘류하게차렷더라닛가 아마귀부인 사회로 주어먹을것이안닌가 그러면항상 귀부인들이 산보다니는공원가튼데로 도라다니면서 오고가는사람과 마차가는것을 주의하면조치』

『그렛다가는에뛰우면 붓드나?』

『아너못들다니 그런것을[illegible]야되나 앗가도말햇지만 다만뒤만밟아가서 그주소만 알면그만일세』

『그러치만그가 마차를탓다면 우리가 엇더케쏘차가겟나』

『무얼 그거야저편에서마차를타면 이편에서도역시 마차를타야지마부에게 한십원 집어주고저마차를 따라가라하면 마부가다알아채느니』

『하 십원이들어차삯보다 더한데』

『그까짓게얼마되나 그려고자네들도 마차도라고 할터이닛가의복도 좀잘차리고 안으면 안되네엇잿던 상등으로차리고 귀부인신사와가터 하여야하네』

마누라는벌서 귀부인이 된듯하야『혼인때에 입던옷이 그대로잇스닛가』

『그러면더욱조치 엇잿던얼마동안이라도 귀부인 신사와가터엇개를견우고 공원가튼 데로산보하는것도조흐니 반드시 시골서올라온 부자의 부부라고는근히 모다존경들하리』

『존경은 일이업네결국은돈을벌기위하야 그러는것인데 날마다수당이란것은 어데서주나?』

『그것은 내가날마다던하에게서타다가 저녁때자네를 맛나서그날하로동안 이야기도 듯고또그이튼날 할일을의론도하고 그러고서주기로하지』

『그러면우리집으로 돈을갓다주겟네그려』

『그러치 그러치그러나자네의집으로해서는 사람들도 드나들고해서 서서히 이야기하지못할때도잇슬터이니 그보다는 료리집으로 맛나는것가 편리하겟지다행히 에렐네에 내가잘아는료리집이 잇스니 저녁마다저녁을먹지안코오면 내가 한잔식냄세』

『저녁갑은 내일당중에서 처두어주는것이아니겟지』

『어미친놈 그것은안심하소』

『홍그러면안심은안심일세』

그러나 그의얼굴에는 엇전지무엇을념려하는 불안한빗이 떠돌앗다 그것은 돈이란문제로해서백수가 너무말이 교묘하기때문에 도로혀의심을 버고잘밋지안는까닭인듯하엿다 이에 백수는주머니에서 백원을써내서『자아이를처일세 내가선당해줌세』하고탁자우에 처노앗다

과연돈을보매 그들의 의심은일시에살아젓나마누라는입이떡버러지며『그러면 약속은되엇습니다』하고 그돈을집어넛다남편도아조안심을하고『아 과연정말일세그려 곳집으로 가서준비를하여가지고 막차시간을 대어서나오겟네』하며 별서일어서랴하엿다

이때에 백수도 자긔가맛나고저하든 사람이 저편에서오는것을보고곳부부와 작별을하고 일어섯다

백수가 맛나고저하는 사람이란다른사람이아니라리원보이엇다그는오늘하로 쉬는날인지 역부의옷을 입지안코 보통옷을입엇스며 한편손으로는 한귀여운소녀의손을 잡고잇섯다 백수는원보를맛난것이다만한번연이오그후로는별로원보를마음에두지도안엇스나 로선생과가티 이일을시작한 후로는 여러가지를료사하여본즉 엇젯던지 미인사건의시종을 데일자세히 아는것은경찰서에서 몰으는것까지도 아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잇고또그가 열심으로 탐색하고잇는한대좌의 유산사건이 이번미인사건과 관계되지안나하는 의심도잇서서 그후로는 한대좌의일을탐색하며 청소마의 행동에주의를하엿스나 역시 구름을잡는것가태서 한대좌의 자손이어대가잇는지 미인김국자가 과연대좌의 혈통인지아닌지 도모지알수가업는중에 다만한가지 유일한단서는 원보의딸 금주이엇다

全治水
마른버짐 진버짐 낭습 오금 피풍 어루러기 其他皮膚病一切의良藥
東京牛込揚方町 合名會社 尾澤商店

社員招聘
内勤 外勤 希望者는履歷書携帶來訪할事
京城貫鐵町一ノ一八七 朝鮮起業會社

光州鄭氏譜所白
大同譜所를京城崇松洞二七番地에設立已久收單急迫宗宗不日收送關報는申込次第無料送呈

朝鮮農園本店販賣部
京城府鍾路五丁目一七一 電話光化門一三三四番 振替京城一二二九五番

獨逸푸쉬會社製 望遠鏡新到着
本品은斯界의工學이最高權威로發達된獨逸『푸쉬』會社에서發明한바이온데價格은비록低廉하지마는遠距離를能히觀察할수가잇습니다

定價 特品 六圓五十錢 上品 四圓八十錢 (上皮製中並) 送料實費五十錢加算
獨逸푸쉬會社望遠鏡 東洋發售元 豐國社 京城鍾路二丁目八三 振替京城一三九九五
國進大學堂 京城鍾路二丁目 振替京城一三九九一

大大阪記念博覽會 收支決算報告

收入		六三二、八八二·七三
内譯	入場料	[illegible]
	場所使用料	[illegible]
	本社補給金及雜收入	[illegible]
支出		四八七、八八二·七三
内譯	天王寺會場費	[illegible]
	豐公館費	[illegible]
	總務費	[illegible]
	天王寺會場復舊費	二一、〇〇〇·〇〇
	報告書出版及殘務諸費引當	[illegible]
收支差引殘金		一四五、〇〇〇·〇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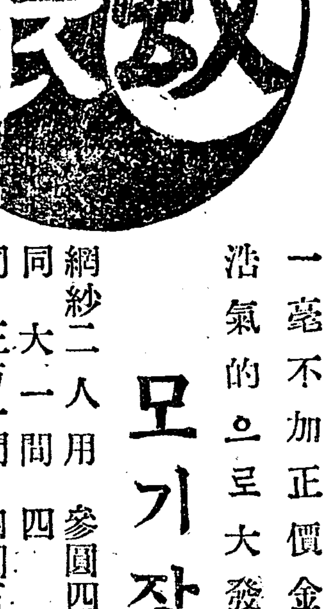
右殘金은左와如히處分함
金拾万円也 大阪市에寄附
金貳万円也 大阪府에寄附
金壹万五千円也 第四師團에寄附
金壹万円也 財團法人大每慈善團에寄附
大正十四年五月
株式會社 大阪每日新聞社

商業家의福音
白苧、紬元羅、明紬、生紬、平壤宮紗、水木、寧布、熙布、德希、孟布、北布、土產物各種、內外國綢緞布木、雜貨其他一般委託買賣及受託商業에對하야資金을低利로貸付함
平壤府鐘路 株式合資 中信委托會社

蚊帳
一毫不加正價金에 浩氣的으로大發賣
모기장은
絹紗二人用 參圓四拾錢
同大一間 四圓
同正方一間 四圓五拾錢
同一間半 五圓
同二間 五圓九十錢
京城南大門通五丁目貳拾貳番地 元豐號

眞理의研究 公正한輿論
月刊 正論 創刊號 定價廿錢
創刊辭=本社의組織과目的……社員一同
◆一般研究와參考材料◆
社會道德振興論……主幹
朝鮮의農村問題……金昌秀
民族感情의起因과그歸結……前田三七男
東西洋家族制度의考察……李相旭
各國의奇異한結婚風俗……李愚用
現下朝鮮의頹廢한風紀를匡救함에는무엇을急務로할가
基督敎精神主義에로……基督敎 李商在
混沌한思想界의整頓이急務……天道敎 李鍾麟
嚴正한輿論의喚起가必要……法曹界 金炳魯
爲先純眞한行動을가게……敎育界 趙東植
自律的良心을高調하라……學生界 李鐘律
◆宗敎研究◆
朝鮮宗敎의過去現在未來……一研究生
信仰心을獲得하라……朝鮮布敎總監 五十嵐絕聖
現代生活과佛敎……宋丹峰
◆朝鮮事業界의調查◆
湖南銀行과玄俊鎬氏……一記者
朝鮮事業界와閔泳徽氏……雲田
京城圖書館과李範昇氏……S·W生
◆風紀問題調查◆
朝鮮製絲會社와劉銓氏……達觀生
色魔王米國人魚乙彬……一記者
悖倫貪婪한慶北巨富秋永求……S·W生
魔女의게홀닌可憐한靑年崔柱煥……探偵生
千里眼
發行所 京城水標町二三 正論社 振替京城三八六〇番

◆經濟的理髮器具出現!!
●理髮業經濟品인合組品을大特價로賣出하나이다 營業用家庭用으로最適한逸品이외다
●弊店은營業家諸位에使用上便宜를爲코자理髮器具에最緊品十五種을一組로하야奉仕的大特價로提供하오니試用하소서



十五種一組 大特價 特組品四圓 並組品參圓五十錢
美裝函入 理髮器、剃刀外十三種付
地方注文은代金引換으로親切히酬應하나이다
京城寬勳洞第一銀行支店前
和洋金物理髮器具商 丸屋金物店

模範運轉士養成修業容易一月修八六圓二月修九二圓就職照會함
自働車練習生募集
詳細案內書二錢封入申込次第送 京城府[illegible]町朝鮮自働車研究所

減配合同大可
但、實現은困難한問題
井內鮮銀理事談

日本에서는決算期를目前에當하고減配를具體的問題로하는銀行도잇고合同도着着進行되는模樣인데此는喜歡할事이다朝鮮에서도勿論其必要를認하나實際問題로는그리簡單히行할수업는것으로今日形便으로는減配問題의協定云云도如何히될는지未知이나다何如間株主의諒解를得할事가至難할것으로銀行도非常히考慮키難한立場이오地場銀行도人氣에關하는關係도잇슬것으로決局株主及一般經濟 勿論金融事業에對한理解가無한事에歸宗되는點이多한바英米諸國은必要에迫할時마다直히整理減配를斷行하고好景氣時代에도日本과如히極히치안어서英米는旣히大正十年부터改善中이나日本은僅히四年을後하야其曙光을現함에不過한形便으로今日도財界는亦是新奇치못하고唯一의希望은下半期의出超이리라昨年은出超期에 入超를見하얏스나本年은大勢로보아出超를見할것갓고아마下半期부터는人氣를喚起하야資金의需要도始作될지나갓다要컨데唯一한希望은外國貿易如何에在함으로目下形勢로는今期減配는理論上必要하지만經濟上의智識과訓練이不足한日本又況朝鮮에서는實際問題로成就할境遇에는困難한事情이多할것이라

金融組合
利下問題
結局條件附乎
林京鑛理事談

金融組合貸出利子引下에就하야는幾者連事會議에서大體의意嚮을聞하엿던바朝鮮과新設組合間에意見의一致를缺하엿다即設立이오랜것은二厘程度의利子引下를行하야도充分히組合의維持가된다하여도最近의新設의것은不可能인듯함으로組合內大部分은利子引下가可能하다할지라도一部를除外하야도조흘던지그與否는相當한考慮를要할것이라고思하나又一은資金의種類에依하야利子引下를行한다는議論이데例컨대都市의商業資金이라던지地方의土地購入資金이라던지特殊한資金에限하야此를實施한다는것이나此는또相當한理由가有하며必要한事라고思한다利子引下라는것은一日이라도速하면一日만치農村의窮狀을救할수잇스나目下總督府當局에서도此是非問題에就하야愼重한審議를하는籍旅임으로實現의運에至할는지도모르것다云云

震災地의
火災保險
支拂안키로

(神戶電) 日本但馬地方大震災에就하야城崎方面으로부터早速히保險金支拂請求의際이有한바二十五日에는管轄地인神戶의各火災保險會社가會合하야協議한結果地震約款에依하야震災로

政府의方針

(東京電) 商工省은今番關西大震災에鑑하야如斯한事變이再次繼發하게된다하면地震保險에關한政府의方針을다시徹底的으로定할必要를認하고將來의變에處하기로되엿더라

因한損失은其直接且間接如何에不關하고支拂義務가無하다는點으로부터絶對로支拂치안키로決定하엿는데契約高는豐岡三百五十三萬圓 城崎 百二十七萬圓其他二十萬圓計五百萬圓인바聯合會地方會長三本三官氏는語하되『今回의問題는研究할餘地가無히關東地方의先例에依하야支拂義務가無하고一例를特히支拂한다는것도東京과는事情을相異히한것으로必要를認치안코다만同情할必要로부터被保險者뿐안이라一般罹災者에게同情金을寄付할터이라』云云하엿스며大阪에서도二十五日公式會合에서原則的으로支拂치안키로意見이一致되얏다더라

震災와大阪金融

(大阪電) 震災地所在銀行本支店은二十三行으로其預金千二百四十一萬圓、貸出九百十六萬圓에不過하고大阪金融界는尙且幾分의警戒氣分을殘함과月末關係로短資相場은一段의引締을呈하엿더라

罹災地銀行에對한
大藏方針未決

(大阪電) 罹災地方銀行에對하야大藏省은前例가無하얏슴으로아즉何等對策을決치못하얏더라

三井信託이
短資輸入保證

(東京電) 三井信託은昨年三井銀行과共同保證으로英國의사뮤엘商會로부터王子製紙會社의短期資金五十萬磅送達에便宜를與하든바最近에至하야英米金融市場과日本의金融市場과의關係를緊接케하기爲하야永久的施設로三井信託獨立勘定으로爲先米國某會社間에一回二百萬弗을限하야信用設定(크레딋트)으로爲替相場의危險을除外하고逐次短期外資의輸入을行할事로되얏는데將來에此種크레딋트의範圍를擴張할意嚮이라더라

大阪綿絲
又復爆發

昨後場期近物九十圓五十錢先物九十四圓八十錢으로續騰氣勢이든大阪三品은本期에至하야依然期近先物共히九十八圓의同鞘인大反撥을呈함에至하얏는데其主因은原棉을基準으로한買過의大反動이라고觀測하는바本年의需給의關係로보면目先은頗히堅實하야眞實한改善으로觀測되더라

小麥暴騰

連日高의小麥은本場인米國의民間減收豫想이現實化하야五月物一弗七十二仙、九月物一弗五十七仙으로二仙、七月物一弗六十一仙、先物은昨日의四十九仙에比하야八仙의大暴騰을演하얏슴으로府內製粉界도引締氣味가濃厚하더라

朝鮮生命總會
梁氏取締役新任

市內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에서去二十五日午後二時에同社樓上에서定期株主總會를開하고貸借對照及損益計算을原案대로可決하고取締役改選을行한結果閔丙奭、韓相龍、李鍾萬、白完爀、李柄學、韓鎭寫數九氏는重任되고梁在昶氏는新任되얏다더라

東拓貸付殘高

四月三十日現在東拓朝鮮內各支店의貸付殘高는定期年賦養合하야口數五〇八六口金額四〇、六〇七、八三三圓〇五錢으로各支店別은如左하더라

(千圓以下削除)

	口數	金額
京城	四六六	一五七四八
大田	八一六	二九五〇
裡里	四五六	三九一三
木浦	七四九	二九七八
釜山	五二二	三九〇三
大邱	四七二	二六七一
沙里院	四一六	一六二〇
平壤	六九〇	四六一六
元山	四九九	二二〇三
計	五〇八〇	四〇六七

東拓理事任命

特殊銀行課長正五位勳五等 岡田信
東洋拓殖會社理事를命함(東京二十五日發)

仁川在米
合格減無檢査增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五月二十三日現在의五銀行穀物在庫數는前調에比하면合格品은五千四百三十四叺의激減을告하고無檢査品은一千二百二十六叺을增하엿는데在庫品을細別하면左記와如하더라

玄米四斗入	一三五、一七六叺
五斗入	一七、二二五叺
白米三斗入	三〇叺
四斗入	七七四叺
五斗入	四九〇叺
正租叺入	四八〇叺
俵入	一二、六七一俵
大豆四斗入	三一二叺
小豆五斗入	五六、三六〇叺
七斗入	二二八袋
大麥五斗入	八五叺
小麥四斗入	四、七七六叺
粉米四斗入	七六一叺
粟七斗入	二、二四〇袋
黍袋入	七五〇袋
糯米四斗入	一、三四四叺
外國米七斗入	二七八袋

不伸!不押!

近日各地場面은幾分變態를告하야市中人氣를鼓舞할만한것으로依然保襲勢를持續하는一定의例行을作할뿐이다四圍의情勢가何等의刺戟이無함으로차라리不伸不押의鈍狀을呈하는것이當然의步調라할수잇다그러나局勢는各市場을不問하고硬性을含한가운데에서保襲하는것으로硬派는旣히勝利를獲하엿다하여도過言이안이라한다然而阪地는客月初에演出하엿든高値에對하야는하고잇든小口物의投賣도殺到하는데一方正米의强硬을背景으로한實物筋의買方에는現象인同時에一段高를現出할뜻도하나納付時期외지는特殊한波瀾이無히殺退하다가結局天候의如何를따라一大分岐를見하리라고觀測이된다

米豆餘話

▲今日은老人觀光團約十人이當市場實況의光景을求府廳의案內로參觀하엿다▲果然그老人들은엇더한感想과印像을어더슬가?집에돌아가子孫에게對하야莫向仁川期米場하라는訓戒이라도할는지▲아즉도白衣族은經濟의智識이幼稚함으로一攫千金의夢想이一擲萬金의反敗를促하기가十居八九가안인가하는말이다▲그런데本年度植付期의天候는何如할는지또는鮮米의時勢는如何할는지兩兩相望의硬軟材는五里霧中에潛在하야兩派의煩悶만일로길할▲或說은阪地四十圓臺로當地三十七圓臺가天井이라고主唱하는派도잇스나餘話子의推測은적어도此處에서二百餘丁의反撥을告한後에아비롯오天井을作할줄로自信하려한다果是엇더할가?

鐵珠板

▲日本關西地方의大震災로因하야 火災保險金支拂問題가再燃되얏스나 東京震災時에先例를得한保險業者들은支拂치안키로決定되얏다고▲이뻐에日本當局에서는 以後震災保險에對하야何等對策을定할必要를認하얏다든가 東京震災도잇섯거던 이제다시西가合一▲產業第一主義의下에對東云云의當局者의機緘은東洋拓殖總裁이 滿洲로馬賊出身의張作霖을往訪하게되얏다產業第一의色彩益益奇怪!又況 三矢警務局長도從此逝矣에야

期米

仁川期米第一報 (二十六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三八、四〇	—	—
中限	三八、〇五	—	—
先限	三七、〇六	三七、一八	一二高

前場小戾

昨後場阪地四十圓十九錢止와共히三十七圓〇五錢에歡聯히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四十圓二十錢인一丁小高를接하고三十七圓十一錢인六丁反高로場을始한後阪地二節三十八錢으로二十七錢의報를接하고十四錢의同事로阪地二十三錢과共히五節十錢外지小落하더니結局은阪地二十七錢의同事로止場을受하고九節十五錢으로十三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五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十四丁이더라

分岐는植付加何

오래동안小康形勢로支離不振하든各地時勢는受米의實行이良好함을唯一勵機로하야阪地四十圓五十錢當地三十七圓三十一錢인突然高價를演出하엿스나高値에는賣方도容易히賣出치못함으로一氣伸暢치못하고賣方은收價를待하야賣衒로커하는傾向이多함으로又復保勢를支續하게되엿다然而當限識은一時山田筋을借賴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七、一一
二節	—	—	三七、一四
三節	—	—	三七、一四
四節	—	—	三七、一一
五節	—	三八、三五	三七、一〇
六節	—	—	三七、一〇
七節	—	—	三七、一五
八節	—	—	三七、一四
九節	—	—	三七、一五
十節	—	—	三七、一三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七、一九
二節	—	—	三七、一九
三節	三八、元	—	三七、一九
四節	—	—	三七、一八
五節	—	—	三七、一八
六節	—	—	三七、一六
七節	—	—	三七、一八

各限俵合 (二十六日前場)

	當限	中限	先限
取組高	九、七〇〇	一三七、一〇〇	二三〇、六〇〇
出來高	—	三、一〇〇	三、〇〇〇
解入高	—	三四〇〇	一〇、三〇〇
合計		二〇、三〇〇	
累計		二三七〇九〇〇	

	賣方	買方	賣方	買方
先限	(フ)三、〇〇〇 ○三、〇〇〇 (カ)三〇〇 (イ)三〇〇	(ト)三〇〇 (ロ)三〇〇 (エ)二、〇〇〇	(ヒ)三、〇〇〇 (ミ)一、〇〇〇	[illegible]

仁川正米不變

實物의賣物은依然稀薄하며白米의實行이良好한中相變하야一時의頭重形勢를作하고依然膠着不振하야二日繼續의保勢를作하는바本日總標價格은左와如하더라

(玄米)	三等	三六、六〇
同	四等	三六、二〇
無檢査米		三四、八〇
一等精白米		四〇、六〇
在來正租		一二、一〇
改良正租		一二、三〇

大阪期米 (二十六日)

前場	當限	中限		當限	中限
寄	三九、三四	三八、八〇	止	三九、七一	三八、八〇
一節	四〇、三〇	三九、五六	六節	四〇、二七	三九、二五
二節	四〇、二八	三九、三〇	七節	四〇、二五	三九、二六
三節	四〇、二七	三九、二七	八節	四〇、二六	三九、二八
四節	四〇、二五	三九、二五	九節	四〇、二七	三九、二七
五節	四〇、二三	三九、二七	十節	四〇、二七	三九、二七

後場	當限	中限		當限	中限
寄	三九、三八	三八、七七	止	三九、七一	三八、八九
一節	四〇、二四	三九、二五	四節	四〇、二八	三九、二八
二節	四〇、二四	三九、二五	五節	四〇、二四	三九、二四
三節	四〇、二九	三九、二七	六節	四〇、二二	三九、二二

東京期米 (二十六日)

前場			
一節	四一、三六	五節	四一、三六
二節	四一、三〇	六節	四一、二五
三節	四一、二二	七節	四一、二八
四節	四一、二七	八節	四一、二九

後場			
一節	四一、三八	五節	四一、三八
二節	四一、三九	六節	四一、三三
三節	四一、三九	七節	四一、三三
四節	四一、三三	八節	—

各地期米 (二十六日)

	前場		後場	
兵庫	三九、九九	三九、七七	三九、六八	三九、七七
下關	四〇、四四	四〇、二七	四〇、四〇	—
桑名	四〇、四五	四〇、四七	四〇、四七	四〇、四九

株式

京取市場

京取短期取引 二十六日

株名		初付	大引	高價	低價
京取	前	三三〇	—	三三〇	三三〇
	後	—	—	—	—
仁取	前	—	八四〇	—	—
	後	—	—	—	—
仁新	前	—	一二七〇	一三〇	—
	後	—	—	—	—
安取	前	—	—	—	—
	後	—	—	—	—
鐘新	前	一二七〇	一二七〇	一二八〇	一二六〇
	後	—	—	—	—
大新	前	八三〇	八三四〇	八三〇	八三〇
	後	—	—	—	—

前場保合

京取 保價 仁取 一〇低
大新 三〇高 仁新 保價
鐘新 保價

大新伸惱
(昨日終價와前場終價比較)

今朝大新은綿絲高를鐘新이高함에追伴되어阪付가同價後三圓案에强剛히大引이엇엇스나當地는亦是下鞘를呈하고無活氣한商狀이엇엇스니八十二圓三十錢同價初付後十錢刻으로上하다가六七十錢間相支後六十錢大引으로小高이엇엇는바人氣가大新보다는鐘新에向하는터로鐘新外지도不冴로不氣乘임으로더욱이大新에는자못可見할商內가업고다만底堅일뿐으로閑散無氣力인場面을示하얏엇다

鐘新大阪八圓
當地下鞘로保價

今朝入電은米棉의不變을報하얏스나綿絲는三四圓方의續騰으로三百圓臺突破氣勢가보임을따러阪地鐘新은百十七圓四十錢初付로百十八圓에外지高步를報하얏것스나當地는人氣不涉하고唯一의强氣인新田外지도手控으로百十七圓에付한後八十錢下鞘인二十錢을示할뿐이다가結局百十七圓保價에終하얏것는바이는高價警戒가依然한一面逆日步豫想이잇슴에因한것인듯하얏다

京取不動閑散

京取는建株의八九分이代引으로

仁取四圓臺

四月三十日에媒介로八十五圓六十錢이잇섯슴을始으로今月中에는全然不成이더니仁取는今朝에吉見의媒介十枚로八十四圓五十錢에一步하얏는바一圓十錢의低落이엇다

仁新伸惱

市川新田成淸等賣로突飛八十錢하야三十二圓五十錢에始한仁新은定岡南等賣로反落하야三十二圓으로三十一圓七十錢에大引되어伸惱로保價이엇슴바實株의出廻가업서逆日步는永續될것가틈으로積極的으로賣치는아니하야下値는勿論업슬듯하나그러라고買進者도別로업는듯하니新規主力買가出現치안는以上相場은만强含附散保合일것갓더라

前場諸株步調 (二十六日)

▲京取 三三〇—三〇—
▲仁取 八四五〇—
▲仁新 一三五〇—一二〇〇—一二〇—
▲鐘新 一二七〇〇·一〇—二七〇〇—二七〇〇—
▲大新 八三〇〇—四〇—三〇—三〇—三〇—
一三〇—二〇—二〇—三〇—

前場賣買關係

▲京取二〇(賣)白井(買)朴(媒介) 新田
▲仁取一〇(媒介)吉見▲仁新一五〇(賣)定岡南(買)市川新田
成淸▲鐘新一二〇(賣)朴市川南(買)成淸新田吉見▲大新四〇〇(賣)田中成淸南市川定岡(買)新田金秀白樂吉見

後場閑散

鐘新 高 大新
鐘新 八〇高 大新 三〇低
(前場終價와後場終價比較)

後場은阪付가大新이三十錢高로八十三圓三十錢鐘新이五十錢高로百十八圓二十錢을報하얏스나當地는다만鐘新이八十錢에付할뿐으로諸株一齊無際中에三時外지見送하다가引際에大新이八十二圓八十錢高로百十七圓八十錢에付할뿐이더라二圓三十錢에大引되엇엇슴뿐으로至極閑散이엇엇다

後場諸株步調

▲鐘新 一二七〇—
▲大新 八三二〇—四〇—三〇—三〇—

取組代引算定日步

株名	取組	代引	算定	日步
京取	三四〇	三三〇	三三〇〇	一五
仁取	一七〇	一七〇不足一〇	八四〇〇逆三	一五
仁新	一九〇	一九〇不足六〇	三三〇〇逆一五	五
安取	一〇〇	一〇八〇	九〇〇	五
鐘新	八三〇	八三〇不足一〇	一二七〇〇逆六〇	
大新	四三五〇	七三〇	八三〇〇	五

出來高 ▲長期 累計 一七二八 ▲短期 累計四二六五六 七九〇〇〇

大阪長期株式 (廿六日)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紡	三三七〇〇	三三七四〇	三三八三〇	三三七〇
同新	二六三〇	二六三〇	二六九〇	二六九〇
大株	九五六〇	九五八〇	九六三〇	九五九〇
同新	八三六〇	八三一〇	八三五〇	八三二〇
郵船	七三四〇	七三四〇	七三〇〇	七三三〇
同新	二六四〇	二六六〇	二六四〇	二六四〇
商船	四三四〇	四三五〇	四三三〇	四三二〇
同新	二六五〇	—	一三三〇	一三三〇
日糖	一〇三一〇	一〇三三〇	一〇三四〇	一〇三六〇
東紡	一四一六〇	—	一四一六〇	一四一六〇
大株中引		九六〇〇	九六〇〇	
大株新		八三〇〇	八三二〇	

大阪短期株式 (廿六日)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新	一二七四〇	一二七六〇	一二八三〇	一二八〇〇
大新	八三六〇	八三〇〇	八三三〇	八三六〇

大阪短期步調 (廿六日)

▲前場大新 八三六〇—八〇—三〇〇—
▲前場鐘新 一二七四〇—三〇—二九〇—三〇〇—三〇〇—
七六〇—
▲後場大新 八三三〇—三〇—三〇—
一三〇〇·三六〇—
▲後場鐘新 一二八三〇—一〇—一〇—八〇〇—

司法代書人案內

忠北淸州邑內本町五丁目三一番地
公州地方法院長認可
司法代書人 李鍾鶴

忠北淸州邑內西町四〇番地
公州地方法院長認可
司法代書人 朴炳圭

忠北淸州邑內旭町二丁目
公州地方法院長認可
司法代書人 宋在善

忠北淸州支廳構內
公北地方法院長認可
司法代書人 趙文行

忠北淸州邑內本町二丁目二一番地
公州地方法院長認可
司法代書人 申正植

忠北淸州邑內本町一丁目
公州地方法院長認可
司法代書人 趙東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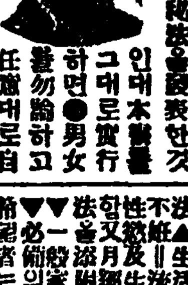
純無鉛
整容美와精神美와를與하는
クラブ白粉 (구라부 백분)
舶來品을 凌駕하는 純良國產品
얼골이거칠지아니하고아름다워지는
カテイ石鹼 (가데이 비누)
クラブ石鹼 (구라부 비누)
얼골이거칠지아니하고 타고난살결의아름다움을더하는日本의二大優良비누이올시다

우리가만든것 堅牢低廉한 金鷄타올手巾(다오루)를 우리가씁시다
咸南咸興郡里日出町四七三ノ三
金鷄타올手巾工場
主 鄭瀚朝

硝子界의첫소리
우리의손으로만드러낸……
平安
硝子는荒凉한우리社會에처음으로나왓숨니다品質堅美、價格低廉한本工場의製品을特別愛用하시옵
營業種目
파리통、魚缸、煙皮、燈笠、잉크甁、藥甁、醫療器其他硝子製造販賣工作品
平壤府西門外
平安硝子工場
金燦鐘

◎大成標運動靴
本品의特色
◎本品은實質로보아他品에比하야倍以上耐久力이有하오니一次試用하심을바라나이다
材料의精撰 耐久力의富 價格의低廉 體裁의優美 工手의熟鍊
◎特約店을募集하오니來問或書問하시옵
◇本品의定價
六文으로七文半外지七十錢
八文으로九文半外지八十錢
十文으로十二文外지九十錢
運動靴製造本舖
開城南大門內
革命靴店

●性學大家 澤田順次郎先生著 四六判洋裝 三四〇頁 總布入美本
▲任意대로產兒하는法(及)
避姙과產兒制限法의研究
보시요!兒孩를願하는분이던지願하지안는분이던지
◆本書는著者가多年苦心研究한結果的確한一大秘法을發表한것
인데本書를그대로實行하면●男女를勿論하고任意대로自由로産兒할수잇스며또한避姙과產兒制限研究에對하야徹底平易하게具體的으로詳述한것이오其他▲人工姙娠法中의變化及諸注意▲姙娠되는時機와되지안는
時機▲生活難과男女兒를自由로生하는法▲生殖器의構造▲避姙法▲女子不姙의原因▲避姙의可否▲產兒制限▲避姙與子宮病과自宅治療法等을圖入하야說明함
▼一般家庭에必備의寶典
▼希望者는切品되기前에至急注文하시오
定價金一圓特價八十錢郵稅二十五錢
申込하시면代金引換으로도送하나이다
東京麻布區三河町七
振替東京四九四八口
正文社



當五月廿三日(土曜)부터寫眞差換
▲구리스치一映畵
喜劇 牛와砂 全二卷
▲파라마운트社特作品
社會劇 시골이그리워 全七卷
▲大유나이뎃트社大傑作
活劇 모리곳돌 全六卷
메물社大作品
大名畵 후란다ー스의少年 全八卷
◆大豫告◆
六堂崔南善氏飜譯(불상한동무)
大유나이뎃트社超特作
大喜活劇 三銃士 全十二卷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番

五月貳拾參日土曜부터日活映畵公開
人情劇 救할방은女 全五卷
米國아스다ー필님會社
大活劇 砂塵을차고 全七卷
米國빅구사운다會社
連續活劇 赤眼 全十六篇三十二卷
三回 第八篇 死의蔭 第九篇 妖燈의淚 第十篇 地獄의鬼
日活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當五月二十二日부터
◆特別大興行◆
◎유社超特作
大冒險大飛躍 肉彈兒 全七卷
◎유社一千萬弗大名篇
文藝名畵 노들담의傴僂男 全十二卷
△大豫告▽
近日公開 朝鮮映畵製作所第一回作品
大悲劇 淑英娘子傳 全篇
松竹 유社 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マ) 廣澤正次郎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六五·七〇·六〇番 (〇マ)又(マ)
(マ) 廣澤正次郎
米糠穀肥料委托賣買
仁川宮町二丁目
電話長三〇七番

金融 貸行高 準備高 一億… 月近物 桑港二十五日發 米棉 不變 經濟銀塊 六七仙八分七 八分三厘 五限 前場 後場 五月末 六月中 六月末 七月中 二回 一回 (與一社調査) 三角山 … 月 兎